

평신도

Vol. 39

SPRING 2013

이 봄의 생각

‘우리는 형제다’

특집 | 새 교황에 바란다

각교구 평협회장 & 단체장 메시지

연중기획 | 시복시성 운동

시복시성 운동의 역사

신앙의 해 | 특집

신앙에 물주기 - 말씀 편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의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Contents

생각 **T**HINKING

- 02. 우리는 형제다/최홍준

특집 **S**PECIAL

- 04. 새 교황에게 바란다
강우일 주교 인터뷰/배봉한
- 06. 각 교구 평협 회장 & 단체장 메시지
- 08. 교황 사퇴부터 선출까지
용기와 변화, 축복과 희망의 40일/이창훈
- 16. 베네딕토 16세 교황 마지막 삼중기도
- 18. 베네딕토 16세 교황과의 추억/성염

지금 **H**OT & NOW

- 20.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김왕기 전 광주평협 회장/김후남
- 22. 평신도가 된다
푸르른 초원에 싹트는 신앙/김흥거
- 24. 연중기획 시복시성운동(1)
시복시성 운동의 역사성/강석진
- 29. 부활절의 기쁨으로/이해인
- 28. 평신도 현장 속으로
평협 제46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 32. 신앙의 해 특집 - 신앙에 물주기
말씀 편/손희송

영성 **S**PRITUALITY

- 35. 새로움은 내 나이/ 김민양
- 36.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김정은
- 38. 부활과 세례/손세공
- 39. 주님은 기다리십니다/이대현

생명·평화 **L**IFE & PEACE

- 41. 생명씨앗/진영진
- 42. 태아는 생명이다/최안나

문화 **C**ULTURE

- 44. 가톨릭 양서/김선동
- 46. 권용준 교수의 성화이야기
- 48. 기도로 걷는 길 - 서소문 순교성지/류정호
- 51. 명강사의 가톨릭특강 - 교황이 된 양치기출신 수학자/명백훈

소식 **N**EWs

- 53. 각 교구 평협 & 단체 활동 소식
- 60. 문화포럼 - 스마트폰의 사목적 활용/김민수
- 6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석규
- 65. 공지사항





최홍준 파비아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우리는 형제다”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신문은 최근호에서 전·현직 교황이 서로 얼싸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아모 프라텔리(Siamo fratelli)’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내 매체에서도 두 분 교황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 아래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3월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근교 카스텔간돌포 교황 별장 기도실 제단 앞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전임 교황은 존경의 표시로 상석인 제단 옆 방석을 권했지만 프란치스코는 ‘우리는 형제다’라는 말로 사양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교황직에 임하신 것입니다. 교황 피선 직후 ‘프란치스코’란 교황 이름을 선택한 데서부터 즉위식과 그 이후의 여러 행보와 언동을 볼 때 이분은 가난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황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3월 22일 교황청 주재 180여 개 국가 대사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교황님은 “다양한 종교와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화 수호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일할 것이며, 사람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뒤져 유용한 것을 찾아 모으는 쓰레기 재생 협동조합의 지도자인 산체스는 새 교황 즉위식에 초대받아 참석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미사를 드릴 때 (부유층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도록 하는 노동력 착취, 매춘, 아동 구걸 등의 형태로 이미 노예상태로 전락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죽이고 있다는 말을 하곤 했다.”며 “우리는 쓰레기 재생 전문가인 새 교황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형제는 누구입니까?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모든 인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형제”(361항)이며 “모든 이를 ‘이웃’으로, ‘형제’로 보는 사랑이 있어야만”(1931항) 인격의 존중과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 40). 교리서는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형제를 위해 공동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 상기시키면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교회 전체를 위해 오직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거나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이웃이 곧 내 형제라고 여기면서 그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2768항).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됐으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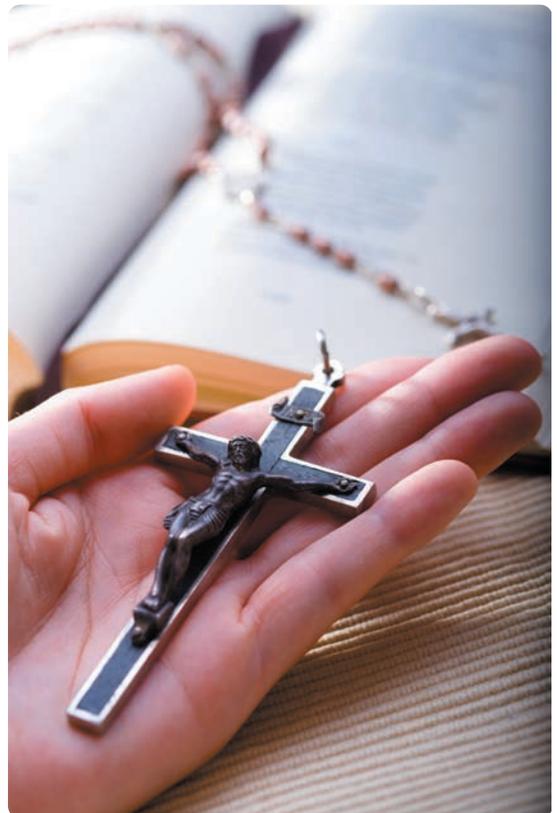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짓밟기까지 한다! 네가 너의 부하를 학대하고 천대하며 약탈하고 매장시킬 때 너는 하느님의 모습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 너는 ‘그렇지만 인간은 하느님과 똑 같은 본성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비록 하느님과 똑 같은 본성은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모습이라 불리었고 다만 이 이름만으로도 하느님과 똑 같은 존귀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임명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평신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평신도 사도직의 의무가 더욱 더 절실하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

니다. 한국평협이 2012년 평신도주일 강론자료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신앙의 불꽃을 태웁시다.”라고 독려한 것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해’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거나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이웃이 곧 내 형제라고 여기면서 그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교황에게 바란다

시대의 징표를 잘 식별해야 합니다



새 교황 선출 전인 3월 7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제주교구장·69)를 만나, 베네딕토 16세 교황 사임 배경과 새로 선출될 교황에게 거는 기대를 들어보았다.
대담·정리 : 배봉한 요한 편집위원

베네딕토 16세 교황 사임 배경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성격적으로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었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수줍음을 타시고 외향적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많이 숙고하시고 고민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책도 아주 잘 다들어서 체계적으로 내셨어요. 베네딕토 16세는 잘 정리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꼭 지켜나가야 할 진리를 어떻게든 수호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인 분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었어요.

사람들은 교황님에 대해서 보수주의자이고 근엄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굉장히 소박하시고 수줍음을 타는 어린이와 같은 표정이 있으셔서 놀랐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던지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임 교황 때도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때 들어와서 성직자 성추행 문제 등 여러 가지 교회 내 문제들이 부각되고, 작년에는 교황청 내 갈등까지 표출이 되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임 발표문에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에 맞갖은 힘이 없다.”며 너무 약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고뇌하시면서 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보다 좀 더 젊은, 패기를 가진 힘 있는 분이 나서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며 결단을 내리셨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결정을, 역사적으로 600여 년 동안 교황이 생전에 퇴임한 적이 없는 그

런 상황에서 사임을 결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때 그만둘 결정을 하신 것은 잘 식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때를 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교회 전통이 교황이 생전에 사임을 한다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임 결심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황님의 깨어있는 영적 식별력과 용기 있는 결단을 깊은 존경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새 교황에게 거는 기대

지금은 교회의 큰 전환기라고 생각이 돼요. 통계상으로도 나타나지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 교회 신자들이 전 세계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어 소수이고, 유럽 교회가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지요. 성소도 줄고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 구성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프리카 교회만 해도 1920년대까지는 불과 2백 몇 십만 신자였다가 현재 1억 몇 천 만으로 늘었고, 아시아권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남미는 지금 전 세계 신자수의 50퍼센트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서 교회의 중심이 더 이상 유럽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대륙의 신자들과 삶을 더 중점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분이 교황이 되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교회 현실적인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교회의 구성원들을 끌고 나가야 하고 문화적으로 지금 큰 변혁기에 있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펼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비전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신 분이 교황님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신도들에 대한 당부

이번에 주교회의의 춘계총회를 시작하는 주교 연

수회 때 이광호 교수의 “미디어 시대의 성소는 왜 급감하며 회복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세대 젊은이들이 디지털 문화를 잘 활용하면 문화에 많은 도움도 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디지털 문화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교회 바깥에서, 복음 바깥에서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세속적 문화와 요소들을 무비판적으로 식별없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심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우리 주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사회가 인간다운 사회로 성장해 가려면 분명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과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들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30년 후에 곧 지금의 10대 20대들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한국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심히 염려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디지털 문화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도 문명 발달의 한 과정이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과 복음적인 가치를 새로운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화가 가진 시대적인 징표가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것을 정말 잘 활용할 줄 아는 영적 식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최근 국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믿어온 가치들과 충돌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화와 정부 시책들과 교회의 복음적 가치, 곧 최근 들어 보편교회가 많이 강조하는 사회교리 측면에서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 교우들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굳건히 설 줄 알아야 합니다.

특집 SPECIAL

새 교황에게 바란다

각 교구 평의회장 | 단체장 메시지



행복한 교황님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순교자 124위와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빌어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신자들의 영원인 추기경님을 2분 이상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수 아벨(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빛으로 오신 교황님, 주님께서 교황님께 특별한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교황직 수행에 힘을 주시기 기도합니다.

강호석 루치아노(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신앙의 해가 계속됩니다. 우리 양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는 착한 목자되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육간에 늘 건강하시고 또한, 세계가 안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지팡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창식 프란치스코(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교황님, 교회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로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황님께서 함께하시어 교회가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광호 벨라도(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새 교황님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해' 를 위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신앙의 신비로 오시길 기원합니다.

김황성 바오로(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제266대 교황님!

순교 신앙 선조들의 시복 시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교황님의 기도를 청합니다.

서정권 베드로(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새 교황님의 착좌를 축하드리며 동방박사를 이끌어준 그분의 별처럼 어두운 이시대에 별이되어 우리가 가는길을 인도하소서
임시홍 베드로(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실천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안으로 쇄신하고 밖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문원주 마리스(포콜라레운동 여자대표)



“용기 있는 전임 교황님 사랑의 응답과 시대의 빛이 될 새 교황님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선출 되신 것으로 믿으며,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조 스테파노(한국천주교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장)



“영원한 목자이신 교황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황님을 통해 이 땅에 진정한 복음화가 국제 사회로 퍼져나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순희 아가대(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찬미 예수님!
새로운 교황님께! 사랑과 평화의 사신인 교황님께 온 인류의 전쟁 종식과 평화가 넘치며 하나되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하느님의 사도가 되십시오.
김광희 펠릭스(레지오마리아 광주 세나투스 단장)



바로로 6세 교황님께서 전 세계 꾸르실리따 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황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새 교황님께서도 저희 꾸르실료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희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을 완수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장주영 요셉(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주간)



특집 SPECIAL

교황 사퇴에서 선출까지 용기와 감동, 축복과 희망의 40일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가톨릭교회는 충격과 감사, 기대와 감동의 극적인 드라마를 체험했다. 제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예기치 않은 사임을 발표했고, 아르헨티나 출신 호르헤 마리아 베르골료 추기경(76)이 새 교황으로 선출됐다.

새 교황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중세 교회 개혁의 발판이 된 성인으로 평화의 사도라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코 이름을 따다. 약 40일에 이르는 이 역사적 시기의 주요 순간들을 살펴본다.

글 이창훈 알퐁소 편집위원 · 사진 평화신문

사도좌 공식 직전인 2월 28일 저녁 카스텔간돌포에서 교황으로서 마지막으로 신자들을 만나는 베네딕토 16세.



새 교황 프란치스코 ▶

충격적 발표, 베네딕토 16세 교황직 사임 선언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 축일인 2월 1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충격적 선언을 했다.

베네딕토 16세는 이날 복자 3위의 시성을 승인하기 위해 소집된 추기경 회의 끝에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직무를 사퇴한다.” 2013년 2월 28일 저녁 8시부터 로마 주교좌, 성 베드로좌는 공석이 되고 관할권자들은 새 교황 선출을 위하여 콘클라베를 소집해야 할 것이다.

교황은 이날 발표문에서 “지난 몇 달 사이에, 저에게 맡겨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정도로 제 자신이 너무 약해졌다.”며 자신의 사임이 건강상 이유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하느님 앞에서 거듭 거듭 제 양심을 성찰하면서 확신하게 됐다.”는 말로 교황직 사임을 숙고해 왔음을 시사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사임 발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은 교황의 겸손하고 용기 있는 결



단에 존경과 지지를 보였다.

쿠바 아바나 교구장 하이메 오르테가 알라미노 추기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사랑과 위대한 겸손함을 갖춘 분만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존경을 표시했다.

미국 워싱턴 대교구장 도널드 우엘 추기경도 교황의 사임 결정은 “큰 겸손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용기의 표징”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대신해 감사와 기도를 전한다고 밝혔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힘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최고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집 SPECIAL



3월 13일 저녁(현지시간)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발코니에서 로마와 세계에 첫 축복을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



▲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 신자들을 만나는 베르골료 추기경.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 “교회를 계속 섬길 것”

교황은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사임하더라도 결코 교황 이전의 개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그러나 나이와 기력에 맞는 방식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2월 24일 교황궁 숙소 창문에서 성 베드로 광장을 내려다보며 신자들과 함께 마지막 주일 삼종기도를 바치고, 27일에는 바오로 6세 홀에서 마지막 일반 알현 시간을 가진 후 28일 오전 추기경단과의 만남을 끝으로 이날 저녁 로마 동남쪽 교황의 여름 집무실이 있는 카스텔간돌포로 떠났다.

2월 28일 저녁 8시, 마침내 사도좌, 곧 교황좌가 공석이 됐다. 선종이나 강제 퇴위가 아닌 자진 사임에 의해 사도좌가 공석이 된 것은 교황 그레고리오 12세(재위 1406~1415) 이후 598년 만이다.

이제 전임 교황이 된 베네딕토 16세는 당분간 카스텔간돌포에서 지내다가 바티칸 안에 있는 ‘교회의 어머니’ 봉쇄 수도원에서 기도로 교회를 위한 섬김의 직분을 계속할 예정이다.



▲ 교황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들이 3월 12일 콘클라베 장소인 시스티나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새 교황 프란치스코 약력

1936년 12월 17일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생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베르고글리오'로 한다
1958년 3월 11일	예수회 입회
1963년	산미겔 시 성 요셉 대신학교에서 철학학사 학위 취득
1964~1965년	산타페 시 인마클라다 대학에서 문학과 심리학을 가르침
1966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엘살바도르 대학에서 문학과 심리학을 가르침
1967~1970년	산미겔 시 성 요셉 대신학교 신학 전공
1969년 12월 13일	사제 수품
1970~1971년	에스파냐의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3차 수련
1973년 4월 22일	종신서원
1972~1973년	산미겔 시 비야 바릴라리에서 수련장 역임, 신학을 가르침
1973~1979년	예수회 아르헨티나 관구장
1980~1986년	산미겔 철학 신학 대학 학장 겸 산미겔 교구 파트리아르카 산호세 본당 주임 사제
1986년 3월	독일에서 박사 학위 취득 이후 엘살바도르 대학교와 코르도바 대학교의 교회사제와 영성 지도자 역임
1992 5월 20일	아우카 명의 주교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
1992년 6월 27일	주교 수품
1997년 6월 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부교구장 주교
1998년 2월 28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2001년 2월 21일	추기경 서임
2005년 11월 8일~2011년 8일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의장
2013년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피선
*교황청 경신성사성, 성직자성, 수도회성, 가정평의회, 라틴아메리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추기경 회의와 콘클라베 개막

추기경단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사도좌가 공식이 된 다음날인 3월 1일 추기경단 수석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은 전체 추기경들에게 공문을 보내 추기경 회의를 3월 4일에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지에 있던 추기경들이 로마에 속속 도착했다. 3월 4일 전체 추기경 207명 가운데 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추기경 회의가 열렸다. 추기경 회의는 교황 선출에 앞서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황 선출에 요구되는 신중함과 현명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 안팎의 주된 관심사는 교황 선출을 위

한 콘클라베를 언제 여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추기경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콘클라베 소집 결정은 교황 선출권을 가진 만 80세 미만 추기경 117명이 다 참석해야만 가능했다. 그런데 선출권을 가진 선거인 추기경 중 2명이 콘클라베 불참을 선언해 선거인 추기경은 115명으로 줄었다.

추기경들은 선거인 추기경 115명이 다 도착하고 난 다음날인 3월 8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를 12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3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모인 150여 명의 추기경들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선출 청원 미사를 봉헌했다. 이어 이날 오후 교황궁 바오로 성당에 모인 선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인가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부에노스아이레스 철도 공무원의 아들. 화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젊은이는 그 꿈을 접고 수도자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이 됐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추기경(76). 물질의 화학적 변화에 관심을 가졌던 젊은이는 인류의 영적 정신적 가치관을 선포하는 사도로 선 것이다.

새 교황을 아는 이들은 그가 가난한 이들과 가까이 해온 겸손하고 소탈한 성품을 지녔다고 말한다. 대주교이자 추기경이었지만 그는 그런 권위를 행사하려 하지 않았다. 견진성사를 주기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공동체를 찾았을 때 신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시내버스에서 내려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허술한 차림의 노사제가 추기경일 줄은 생각지 못한 것이다. 로마에 주교들의 모임이 있을 때면, 언제나 뒷자리에 앉기를 원했다.

보좌주교 시절에는 은퇴 사제를 위한 집을 숙소로 이용했고, 대주교가 된 후에도 잘 꾸며진 대주교관에서 살지 않았다. 침대 하나와 냉기를 가해주는 난로가 있는 소박한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음식은 손수 해먹었고, 교통편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즐겨 이용했다. 틈틈이 빈민촌을 찾아 미사를 집전하고 가난한 주민들과 어울렸다.

2001년 추기경에 임명돼 서임식에 참석하러 로마로 갈 때 그는 축하단이 함께하려는 것을 못하게 했다. 그 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유했다. 로마에서는 숙소에서 바티칸까지 걸어서 다녔다. 서임식장에서 수많은 축하단이 함께한 다른 추기경들과 달리 베르골료 추기경을 축하한 사람은 비서 신부와 친척 두 명이 전부였다.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기인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 관공장이었던 그는 동료나 후배 사제들이 기초공동체에 들어가 사회구조를 바꾸려는 의식화 운동에 가담



하는 것을 반대했다. 사제는 본당을 사목하고 신자 단체들을 사목해야지 행동주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론에서였다.

그렇다고 사회적 불의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는 않았다. 그가 추기경이 된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수백만 아르헨티나인들을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7년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때는 “계속되는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가 사회적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수많은 형제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누릴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사회 변혁가는 아니었다. 가난한 삶을 살고 가난한 이들을 향하는 그의 삶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구조적 개혁이 아니라 사랑의 개혁이었다.

그는 교회 가르침에 투철하다. 성 윤리, 생명 윤리, 낙태와 피임, 동성애자들의 혼인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동성애자들의 입장을 허용하자 “입양되는 아이의 인권에 대한 차별”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나 미혼모의 아이라는 이유로 세례 주기를 거부하는 사제들을 향해서는 “위선적인 성직주의자들”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새 교황은 자신의 교황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정했다. 단순함과 가난과 겸손으로 교회를 내부부터 개혁하고 쇠신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1182~1226)을 교황직을 수행하는 롤 모델로 선택한 것이다.

기사가 되려던 꿈을 접고 평화의 사도가 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새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온 교회가 기대하며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

거인 추기경 115명은 이 시대 교회와 인류 사회를 위한 적합한 목자를 선출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도록 모든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면서 시스티나 성당으로 향했다.

추기경들의 비밀 준수 서약이 끝나고 마침내 시스티나 성당 문이 굳게 닫혔다. 두 시간 후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새 교황 탄생, 감동의 첫 만남

3월 13일 저녁 7시 6분, 마침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다섯 번째



▲ 3월 19일 베드로 직무 시작 미사(즉위 미사)에서 강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투표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이다. 새 교황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인 호르

프란치스코 교황 문장 “자비로이 부르시니”



기본적으로 주교 때 사용하던 것과 같다. 방패는 밝은 청색 바탕에 가운데 위에는 노란빛의 태양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IHS가 적혀 있다(이는 예수회 로고이기도 하다). IHS는 ‘인간의 구원자 예수’라는 뜻의 라틴어 ‘Jesus Hominum Salvator’의 약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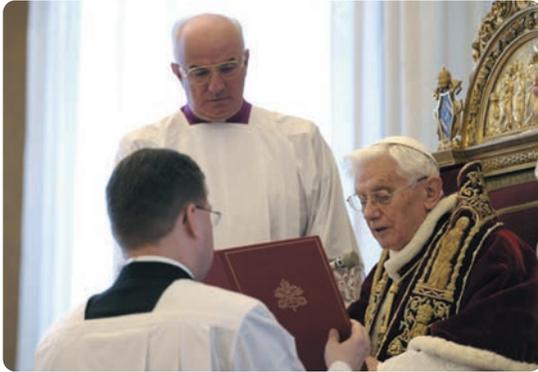
방패의 왼쪽 아래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나타내는 별이 그려져 있다. 별 오른쪽에는 보편 교회의 수호자이신 요셉을 나타내는 나르드 꽃이 있다.

추기경 때와 다른 점은, 방패 위에 챙이 넓은 홍색 추기경 모자 대신, 교황을 상징하는 교황관과 붉은 줄로 연결된 금과 은으로 된 두 개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토는 “자비로이 부르시니 (miserando atque eligendo)”이다. 이는 마태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복음 이야기에 관한 베다 성인의 강론에 나오는 말씀이다.

교황은 열일곱 살이었을 때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에 고해성사를 한 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고 로울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모범을 따라 사제직에 부름 받고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특집 SPECIAL



▲ 2월 11일 추기경 회의에서 복자 3위 시성 승인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고 있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이 교령 발표에 이어 전격적인 사임을 선언했다.



▲ 교황 직무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 오전 추기경단과 만나고 있는 베네딕토 16세.



▲ 베드로 직무 시작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제대에 오르는 새 교황 프란치스코.



▲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월 11일 추기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3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베드로 직무 시작 미사 때의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제대 전경.



▲ 3월 17일 바티칸 성 안나 성당에서 주일 미사 중에 신자들에게 강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 2월 28일 카스텔간돌포의 숙소로 돌아가는 베네딕토 16세.



▲ 대주교 시절 지하철을 타는 베르골료 추기경



▲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시절 성 목요일에 복지시설을 찾아 발을 씻어주고 입맞춤하고 있는 베르골료 추기경.

헤 마리오 베르골료 추기경(76)이었다. 새 교황은 자신의 교황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정했다. 프란치스코회의 창설자이자 가난과 겸손을 특징으로 하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였다. 이탈리아의 수호성인으로 평화의 사도로 불리는 그는 생태계의 수호성인이기도 했다.

드디어 하얀 옷을 입은 새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발코니에 나타났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형제 추기경님들께서 로마의 주교를 찾고자 지구 끝까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20만 인파가 새 교황을 향해 환호하고 열광했다.

형제애와 사랑과 신뢰의 새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힌 새 교황은 교황으로서 첫 사도적 축복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위해 신자들이 하느님께 복을 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자체가 감동이였다.

신자들과 첫 만남을 끝낸 교황은 아르헨티나 교황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황을 보러 로마에 오려고 하기보다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였다. 교황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도 통화했다.

로마의 밤은 깊어 갔지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아름다움, 희망의 설렘은 점점 더 밝아오고 있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 제2주일인 오늘(2월 24일 현지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복음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서 저자 루카는 이러한 변모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기도의 은혜로 일치될 이루셨는데, 이는 일종의 피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시어 바오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들 세 사도는 언제나처럼 위대한 스승께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순간마다 함께하도록 부르셨습니다(루카 5,10; 8,51; 9,28).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9,22), 곧 이어 당신의 영광을 미리 맛보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소리가 주님의 세례 때처럼,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9,35)라고 주님의 변모 때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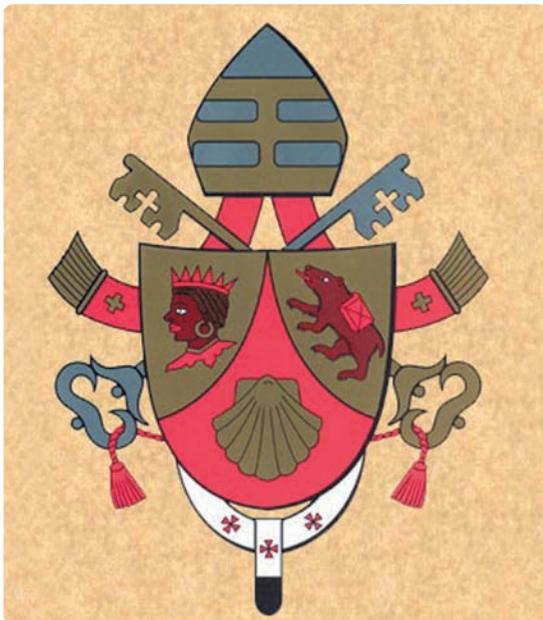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두 분의 현시를 통해 구약과 신약 전체 역사가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새로운 ‘탈출기’ (9,31), 즉 약속된 지상의 땅을 향했던 모세 때와는 달리 이제는 천국을 향한 탈출을 이끌어 주실 분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신비 체험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나타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베드로는) 산 위에서 그리스도를 그의 영적 양식으로 간직하려 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산을 내려가 힘든 일을 겪고 비탄에 다시 빠져야 하는지, 대신 산 위에서 하느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느님을 만나고자
끊임없이 산에 올라 하느님에게서 사랑과 힘을
얻고 내려와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봉사하는 여정입니다



의 거룩한 사랑에 흠뻑 젖어 내적 영감을 일으켜 거룩한 수행을 할 수 있는데”라고 지적했습니다(설교집 78,3; PL38,491).

복음서의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로부터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탁월성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도 활동도 자선도 그 모든 선한 의도가 행동주의로 축소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올바른 시간을 바쳐야 우리의 영적 생활이 휴식으로 생

기를 얻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베드로가 타볼산에서 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세상의 모순에서 벗어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삶의 여정과 행동으로 우리를 되돌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2013년 사순시기 교황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하느님을 만나고자 끊임없이 산에 올라 하느님에게서 사랑과 힘을 얻고 내려와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봉사하는”(3항)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복음말씀이 제 삶의 현재 순간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처럼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산에 올라 더욱 더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교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실 때에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대로 똑같은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에 봉사를 계속하라는 바로 그 뜻이며, 다만 제 나이와 근력에 좀 더 적합한 방식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합시다. 모든 이들이 기도할 때나 적극적으로 자선을 베풀 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2013년 2월 24일

한반도 비핵화를 간절히 바라시던 교황

성염 요한 보스코(전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

“거 잘생긴 독일 신부 있잖아. 와~ 미남이데. 근데 그 곁에 하얀 옷 입은 늙은이는 누구야?” 라칭거 추기경이 교황으로 즉위하던 무렵, 이탈리아 여성지들이 새 교황의 개인비서 게오르그 갱슈바인의 수려한 얼굴을 다투어 표지에 싣는 바람에 이런 농담이 한참 나돌았다. 지금은 대주교가 되었지만 게오르그는 옛 주인을 따라 카스텔간돌포 교황별궁으로, 그 다음에는 베네딕토 16세가 은둔할 수도 원으로 그를 수행하리라는 발표가 나왔다.

2005년 4월 19일 오후, 필자에게 바티칸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새 교황이 선출되었으며 한 시간 안에 “하베무스 파팜.(교황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있으리라는 소식이었다. 서둘러 바티칸으로 가는데, 세상에! 로마시민 전부가 바티칸으로 달려가고 도시는 텅텅 비었다. 하기가 시스티나 굴뚝에 흰 연기가 오르고 새 교황이 성베드로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 등장할 시간이니, 그 설렘과 기대가 어떠했겠는가. 얼마 뒤 굴뚝에 흰 연기가 오르고 베르니니 광장과 전 지구가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그 뒤 필자가 임지에 있던 3년간 베네딕토 16세는 한국 가톨릭교회에 자별한 관심을 보이고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에서 한반도 사태를 여러 차례 언급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리게 하였다.

“한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대화

항구히 지속되어,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상호 우호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하기를 기도하며”(2005년 성탄 메시지), 교황 신임장을 제정 받는 자리에서는 “본인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서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제사회가 가장 취약한 백성들에게, 특히 북한에 있는 백성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추구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갑작스런 원조 중단이 시민들에게 참으로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2006.11.13)라고 천명하였다.

2007년 교황청 주재 외교단 초청 신년하례식에서도 “한반도에는 위협스러운 불씨가 잠재해 있습니다. 한민족을 화해시키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노력은 주변지역 전체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는 어디까지나 협상의 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무산시킬 수 있는 태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에 못지않게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돌아갈 인도적 지원을 좌우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긴 언급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같은 해 노무현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2월 14일)

“본인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때에도 연설문 교환으로 국빈 방문처럼 예우하면서 남북대화를 격려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 시기에도 “한반도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는 두 한국 사이에 중요한 대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전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화해의 노력이 한국 국민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 주변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줍니다.”(2007.9.30 카스텔간돌포 삼중기도)라는 말씀으로 지원하셨다.

그러나 은퇴하시는 교황님과과의 개인적 친분이 내게는 더 따스한 기억으로 남는다. 2006년 외교단 신년하례식에서 필자의 아내가 “교황님, 저 할머니가 됐어요. 손주가 성탄 전야에 태어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하고 인사를 드리자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기에게 제 축복을 보냅니다.”라고 대답하셨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사 부부가 의례적 인사만 드



▲ 베네딕토 교황님을 접견중인 성염대사



▲ 베네딕토 교황님과 성염대사 가족

리고 지나가는데 한참이나 교황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자 다른 대사 부인들이 궁금해 하며 “술란, 무슨 얘길 드렸기에 교황님이 그렇게 밝게 웃으셨어?”라고 부럽다는 눈길을 보냈고, 필자의 아내는 “그건 국가 기밀”이라고 농성을 떨었다.

이듬해 부활절 바티칸 광장의 미사에서 필자의 큰아들 부부가 아기를 안고 봉헌예물을 드리면서, 아기가 누구 손주인지 말씀드리자 교황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고무젓꼭지를 물고서 당신을 뵈니 쳐다보던 아기에게 미소를 보내며 이마에 십자를

그어 축복해 주기도 하셨다. 재작년 작은아들의 사제서품에도 교황님은 친필 서명으로 강복장을 보내주셨다.

필자뿐만 아니라 필자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교황님과의 추억은 오래 오래 잊지 못할 것이다.

지금HOT & NOW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성덕의 길을 가도록 참된 영성의 삶을 살아야

김왕기 그레고리오(전 광주대학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사랑과 섬김'

김왕기 전 광주평협 회장(78)은 올해로 '희년(禧年)'을 맞은 신앙생활에서 얻은 결론을 이 두 마디로 표현했다. 그동안 회보 형식으로 발행되던 <평신도>가 올봄부터 계간 잡지로 발행되면서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주춧돌을 놓아준 원로 평신도를 만나 그들의 신앙생활과 평협 활동에 대한 회고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첫 만남의 주인공은 김왕기 전 광주평협 회장이다. 김 전 회장과의 만남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문일답.

정리 : 김후남 파비올라 편집장

- 올해로 신앙생활 희년을 맞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떤 연유로 가톨릭에 입문하시게 되셨나요.

“금년(2013년)은 본인으로서는 신앙생활 50년이 되는 해, 즉 희년(禧年, 50주년)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는 신의 존재와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갖지 않았으며, 오직 미래에 과학자가 되기 위한 꿈을 안고 부나 명예,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과 삶이 과연 참 의미가 있는 인생여정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또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등의 철학적 및 신학적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수년 동안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50년 전(1963년)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을 때 가톨릭교회에서 성모승천 대축일 전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광주평협 시절에 대한 회고와 당시의 평협 활동은 어땠나요.

“저는 물리화학을 전공하였지만 대학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예비신자 교리교육에 10년 이상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당 사목회장, 평협회장, 꾸르실료 주간 등 여러 직분을 맡아 봉사하면서 비교적 성직자, 수도자들과도 만나는 기회가 잦았고, 현재까지도 성직자, 수도자 몇 분과는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인간사회 안에 존재한지라 신앙에 대한 마음의 갈등도 있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성구가 있습니다. ‘누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마태 5,40; 루카 6,29),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43-48; 루카 6,27-36). 그런데 보통사람은 완벽한 존재도 성인군자도 아니기에 그러한 삶은 거의 불가능하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참

김왕기 회장은 누구?

- 1936년 전남 나주생
- 전남대 명예교수, 이학박사
- 천주교 광주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주간,
-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 회장
- 월산동본당 사목회장, 전남대 가톨릭 교직원회장
- 제28회 가톨릭대상 수상(2011년)



신앙인이란 위와 성구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 대인관계에 있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런 대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30여 년 전(1980년대 초)에는 광주대교구에 본당별로 사도회가 있었고, 교구에 사도회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광주 월산동 본당 사도회장을 하면서 교구 사도회연합회장을 맡아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가톨릭대(당시에는 대건신학대학) 교수 신부이신 분이 평신도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를 ‘사도회’라고 일컫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광주대교구에 외국인 신부님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인 신부님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교구나 본당도 외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제가 평협회장을 맡고 있을 때 자립 교구가 되었고, 교구의 운영이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반대로 한국인 신부님들이 대부분이고 외국인 신부님은 소수입니다. 30~40년 동안에 교회의 시대적 상황도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 원로 평신도로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현대에는 과학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

회적으로 윤리, 도덕은 사라지고 어려서부터 오직 국·영·수 과목에만 신경을 쓰는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이 갈수록 영망진창이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은 경제발전에만 앞서 도덕과 정직과 질서의식이 투철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한심스럽고 답답합니다. 사회야 어떻게든 신앙인은 도덕과 정직과 질서의식이 투철하고, 성덕의 길을 가도록 참된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은.

“저는 현재 70대 후반의 인생 황혼기이고 인생 정리 단계의 나이이기에 신앙 50주년의 희년을 맞이하여 인생 역정에서 터득한 신앙에 관련된 기본 상식, 그동안 과학과 신앙의 조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발표한 내용, 그리고 회고한 소회 등을 일종의 회고록으로 정리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왕기 회장과와의 이메일 인터뷰는 질문을 보내고, 그 질문에 답하는 지극히 단조로운 형식이였다. 하지만 답변이 도착한 이메일을 열 때의 기분은 소풍간 날 도시락을 펼칠 때의 설렘과 풍성함 그대로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평생을 통해 새겨온 ‘사랑과 섬김’의 향훈이 이메일의 행간에도 번진 덕분이 아닐까.

지금HOT&NOW 평신도가 된다

푸르른 초원에 싹트는 신앙

몽골 마리안느 병원에 가다



김홍거 세례자 요한
(전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700여 년의 역사 속에 칭기즈칸의 피가 흐르는 몽골

몽골은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부에 있는 국가이며, 끝없이 펼쳐지는 광대한 초원이 지평선과 하늘이 맞닿는, 경이로운 광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몽골의 총면적은 156만㎡이며, 전체 인구 중 40% 정도가 수도 울란바토르시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인 다수는 13세기부터 전파된 티베트 불교를 믿으며, 그중 라마불교 신자가 90% 이상으로, 불교가 국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장례의식 등 문화 곳곳에 라마불교의 영향이 미치며, 살아가면서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몽골 유목민들은 신을 향한 몸짓을 보입니다. 몽골 라마불교의 신심은 우리의 가톨릭 신심과 유사합니다. 게르에 등을 밝히거나, 후르트를 돌리는 행위는 마치 촛불을 밝히거나 목주 알을 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기도를 한다'는 표현이 '경전을 읽는다'로 대신할 만큼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에서 '성경'을 통한 복음 전파의 희망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신을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쉽지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유일신'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절마다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

에게는 주말마다 성당을 찾아 미사를 봉헌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익숙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9일, 울란바토르 성긴하에르항구 바양호쇼 지역에서 한국 주재 겸 몽골 주재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 주례로 '마리안느 병원' 축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축복식에는 몽골지목구장 웬체슬라오 파딜라 주교와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를 비롯해 대전교구 방문단과 몽골 선교사 및 신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찾아간 마리안느 병원은 지난 2005년, 평생 튀김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 6000만원을 기부한 정한용(마리안느·66) 할머니의 정성에 이어 대전교구를 비롯해 전국 각지 신자들이 십시일반 전달한 후원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첫 기부자의 이름으로 짓게 되었고, 2006년 착공했지만 자금난으로 7년이 걸려 완공됐습니다.

마리안느 병원은 연면적 1485㎡ 3층 규모로 1층에는 치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등 외래진료실을, 2층에는 각종 검사실을 갖춘 준종합병원 규모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은 그러한 도움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며 많은 이들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몽골 마리안느 병원은 평생 튀김장사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정한용 할머니의 정성과 대전교구를
비롯한 한국 신자들의 십시일반
기부로 세워졌다.
무료병원인 이곳에는 몽골의 가난한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다.**

몽골지목구뿐만 아니라 울란바토르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무료병원 건립이 결실을 맺은 마리안느 병원은 이준화 신부님께서 원장으로 계신 몽골 가나안복지센터에서 설립하였으며,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 총 8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편 몽골에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이준화 신부님을 통해 그곳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고려아 이텍(대표 이창선)에서 안과 수술용 현미경(2000만원 상당)을, 미약하지만 제가 현미경 외 39점(1000만원 상당)을 기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몽골 초원에 현대 가톨릭교회가 자리 잡은 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몽골에는 지난 1992년 성모성심수도회 선교사가 파견되면서 오랜 시간 잊혀진 선교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 주재 교황대사가 몽골 주재 교황대사를 겸하게 되면서 한국교회와 몽골교회는 끈끈한 인연의 끈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전교구는 1997년, 한국교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몽골에 피데이 도눔 선교사제를 파견해 현지 사목 협조뿐만 아니라 몽골교회 자립을 위한 물질적, 행정적·영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구는 대전가톨릭대학교를 통해 몽골인 신



학생 2명을 양성 중이며, 몽골교회 안팎에서 활동할 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 몽골인 유학생들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활동은 현재 대전교구 한끼나눔운동본부와 몽골선교후원회, 마리안느병원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교구민과 전국 각지 신자들의 뜻을 모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몽골교회가 선교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교회로서, 무엇보다 신앙의 뿌리를 탄탄히 내리도록 영적·물질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고, 보다 많은 몽골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자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도 외국 교회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몽골 마리안느 병원 건립에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HOT & NOW 연중기획 시복시성 운동(1)

우리의 기도로 앞당기는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



강석진 요셉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신부)

평신도 유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수용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독특하고도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천주교 전파 이후 거의 100년 이상 한국 교회는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았으며, 수많은 천주학생 이들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 앞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순교의 삶을 통해 신앙을 증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1831년 '조선 대목구 설정' 과 함께 1836년에 입국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선교사들은 당시 순교자들의 순교 사실에 대해서 동료 평신도로 하여금 일기 형식의 기록으로 남기게 하였고, 이것들은 시복시성을 위한 준비작업의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기해 및 병오 순교자 기록'으로 엮어져 1847년 로마 교황청에 보내어졌으며, 마침내 1857년 9월 23일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한국 순교자 시복 조사를 접수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 최초로 순교자 82위가 가경자로 선포되었다. 당시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한국 순교자들의 '시복' (諡福)의 첫 단추는 당시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자발적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순교 영성의 바탕이 되었다.

1886년 한불수호조약 이후 천주교에 관한 묵시적 종교의 자유는 시복시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시복 대상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 및 확인' 작업이 자유롭게 진행되면서, 당시 수집된 문헌 및 사료들을 통해 순교자들의 유해들이 발굴되었고, 이렇게 확인된 순교자들의 유해는 당시 명동성당 지하실 혹은 그 밖의 교회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는 <경향잡지>나 <별> 등 당시 교회 잡지에서 주요 기사로 다룸으로써, 신앙 선조들의 역사적 순교 사실과 '순교자 공경의 중요성'이 평신도들에게 꾸준히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의 바탕 역시 당시 순교자들과 함께하는 '신자들의 기도'가 중심에 있었다.

시복 준비를 위한 '기도 운동'은 당시 한국 교회 지도자들도 솔선수범했다. 경성교구 드브레 부주교가 파리의방전교회 본부로 보낸 '1924년 보고서'를 보면 '기해 병인년 순교자 시복'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영광스런 순교자들의 전구(轉求)로써 일찍이 고난 중에 씨를 뿌리고, 피로써 물을 준 것으로부터, 기쁨 가운데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로 간청하였다. 또한 '1925년 보고서'에서는 "이 신앙의 순교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전구를 통해 일찍이 그들이 자신의 피로 적신 조선 땅에서 벌였던 투쟁을 모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신뢰를 얻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시복을 위한 기도'는 성직자와 수

▶
2011년 한국평협이 주최한
시복·시성을 위한 전국
성지순례에서 해미성지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박해시대를
재현하며 행진하고 있다.



도자, 평신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절실했음을 알 수 있다.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 운동'의 간절한 열망은 마침내 1925년 7월 5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 한국 순교자 79위 시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시복식 참석을 위해 로마에 머물렀던 한국 교회 주교인 뫼텔과 드망즈 등은 '시복식' 이후 '복자경문', 즉 한국 순교자들을 위한 복자 기도문을 발표하고, 한국 교회 전 신자들의 보다 더 열렬한 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 시복자들이 성인 품에 오를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시복식 이후 순교자들에 대한 기도 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갔다. 우선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 26일을 '복자 축일'로 정하여, 전례 안에서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기도 안에서 축일을 성대하게 지냈다. 특히 '복자 축일 대미사'와 '복자 유해 경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도' 안에서 순교신심을 굳건히 다져 나갔다. 또한 복자 축일 기념 '강연회' 및 복자 축일 기념 성대한 '제등 행렬'을 거행하면서, 한국 순교자들의 정신을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는 그 이후 교구 내 중대한 행사를 준비할 때에도 중심에 있었다. 예를 들어, 1931년 '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 교회에 최초의 공의회 개최가 확정된 후, 조선 다섯

개 교구 주교들은 전체 교구 신자들에게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맨 먼저 '한국 순교자들에게 특별히 전구하기'를 청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 밖의 한국 교회 내 공식적인 큰 행사가 치러질 때면, 언제나 신자들에게 '한국 순교자들'에게 우선 기도하기를 당부하였다.

이러한 기도 운동의 결실은 곧 병인박해 순교 가정자 26위 중에서 '24위 시복식'이 1968년 10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되었다. 당시 시복식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500여 명의 한국 신자들과 2500여 명의 프랑스 신자들이 시복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시복 선언이 끝나자마자, 당시 서울대교구장이었던 김수환 대주교의 주례로 장엄한 대례미사가 거행되었다.

1971년 한국 교회 주교회의에서는 한국 순교복자들에 대한 '시성 추진 안'을 접수하게 되었고, 1976년에는 '1925년 79위 복자', '1968년 24위 복자'에 대한 시성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한국 순교자 시성운동'을 한국천주교 창설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순교자들을 향한 기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며, 그중 하나로 '순교자 유해 순회 기도회'를 장엄하게 거행하였다. 이러한 한국 교회 전 신자들의 자발적이며 열성적인 '기도'와 '시성'에 대한 꾸준한 노력은 마침내 한국천

지금HOT & NOW 평신도 연중기획 시복시성 운동

▶ 2012년 시복·시성을 위한 전국 성지순례에서 순례자들이 성가산 성지에서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다



주교 창설 200주년인 1984년 5월 6일, 순교의 피가 얼룩져 있는 한국 땅에서, 천주교의 최고 수장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모시고, 한국 교회 '103위 순교 복자 시성식' 미사가 거행되면서, 한국 순교자 시성이 엄숙하게 선포되었다.

이상으로 과거 '시복시성'의 역사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그 안에 '기도 운동'이 중심이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또다시, 모두의 '기도 운동'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교회는 '124위 하느님의 종과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들 '124위 및 증거자'에 관한 '피의 순교' 및 '땀의 순교'에 관한 세세하고도 탁월한 신앙 증거의 행적들은 우리 교회 측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관변 기록을 통해서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순교에 관한 기록을 들여다 볼 때, 모진 문초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느님 신앙을 증거했던 모습이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 이들 순교자들이 시복시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지금은 단지 '시복시성'되는 그 시간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교회의 '시복시성의 역사'는 평신도들의

'기도 운동'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 '기도 운동'의 전통은 103위 시복시성을 기다리며 근세기를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일제 강점기에도 천주교 신앙을 잘 유지 발전시킨 신앙의 선배들, 6.25 전쟁의 와중에도 신앙을 놓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온 몸으로 보여 준 생생한 전통이었다.

우리는 신앙 선조와 선배들이 보여준 '기도 운동'을 본받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가경자', '두 차례의 시복 및 시성식'은 한민족 안에서 천주교 신앙인의 자부심과 신앙의 우수성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었던 외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이었다면, 이제 '124위 하느님의 종과 증거자 최양업 신부에 대한 시복시성 작업'은 좀더 내적으로 우리 각자가 신앙적으로 한층 성숙해지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순교'라는 단어가 과거 종교 박해 시절에만 사용된 신앙의 '사투리'가 아니라 일상의 친숙한 언어이자, 우리로 하여금 일상 안에서도 '순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순교 영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부활절의 기쁨으로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당신이 안 계신 빈 무덤 앞에서
죽음 같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던 저에게
다시 살아오신 주님
이제 저도 당신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지 않는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겠습니다.
혼자서만 지너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빈 무덤에 갇혀 있던
오래된 그리움을 꺼내
꽃다발로 엮어 들고
당신을 뵈오러 뛰어가겠습니다.

이토록 설레는 반가움으로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서
지난날의 불안과 두려움의 돌덩어리는
멀리 치워주십시오.

죽음의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살아오신 주님
산도 언덕도
나무도 풀포기도
당신을 반기며
알렐루야를 외치는 이날

다시 살아오신 당신께
살아 있는 저를
다시 바치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지금HOT & NOW 평신도 현장속으로

평신도 현장속으로

한국천주교 평신도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46차 정기총회 이모저모



▲ 춘천교구 죽림동 주교좌성당 구내 성직자묘소를 참배한 참가자들이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를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날 김운회 주교님은 "한국 천주교의 발전에 한국평협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치하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 손희송 신부)는 지난 2월 15~16일 이틀 동안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해마다 시행해온 가톨릭대상, 우리 성가 노랫말과 작곡 공모, 정신운동의 필요성을 나누기 위한 심포지엄, '신앙의 해'를 보내는 다양한 신앙생활 체험수기 공모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 개회사를 통해 최홍준 회장은 선종 4주기를 맞이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가르침에 따

지난 2월 15~16일 이틀동안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제46차 평협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2013년 평협 주요 활동으로는 시복시성 기도운동과 더불어 신자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와 평양 장충성당 신자들과의 민간 교류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

라 “우리 신자들이 먼저 진리, 정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향해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로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각 교구 평협과 전국 단위 평신도사도직 단체로 구성된 총회 참가자 50여 명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등을 승인하고,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널리 알리자.”를 활동지표로 하는 201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신앙의 해를 더 잘 살기 위해 전국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앙수기를 공모하자는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김현조)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11월에 시상하기로 했다.

2013년 한국평협은 마산(4월), 인천(7월), 대전(9월), 청주(11월) 주관으로 네 차례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일정 중에 세미나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교회 ‘하느님의 종’ 들에 대한 시복·시성 기도운동을 계속 펼치고, 2012년부터 시행해왔던 제19대 신자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과 올해로 각각 설립 25주년을 맞는 북한 조선천주교인협회와 평양 장충성당 신자들과의 민간 교류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

개막미사를 집전한 손희송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는 서울대교구 신앙의 해 교구장 사목교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자답게 사는 모습이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져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며 “순교성현들의 순교의 힘은 기도였으며 기도하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유했다.

본 회의에 앞서 각 교구 평협의 활동을 나누는 차원에서 서정권 광주 평협 회장이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들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 참석자들은 둘째 날, 춘천교구 죽림동 주교좌성당 구내 성직자요소를 참배한 후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 주례 파견미사 봉헌으로 일정을 마쳤다. 김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한국천주교의 발전에 한국평협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치하한 후 “이제는 한국평협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시점”이라며 “이번 총회가 새 시대에 맞춘 새로운 모습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사가 끝나기 직전 김 주교는 “모범적인 평신도로 일생을 살아간 고 장면 박사의 삶을 본받기 위한 사업에 평협이 함께하면 좋겠다.”며 훌륭한 정치인으로, 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다간 고 장면 박사 기념사업에 뜻을 모아 함께 동참하기를 희망했으며, 최홍준 회장이 기념사업회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추후 함께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금HOT & NOW 평신도 현장속으로

정 기 총 회 이 모 저 모



회의 전 임기를 마친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김홍거 전 대전평협 회장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전 상임위원으로 문덕영 회장, 윤재송 회장, 김태성·김희숙 회장이 함께 받았다.



둘째날 참가자들이 춘천교구 주교좌 죽림동성당 내 성직자모지를 방문하여 기도하고 있다.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를 환영하며 교구평협 회장들과 회원단체장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의 주례로 정기총회 파견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춘천교구 죽림동성당 식당에서 김운회 주교가 마련한 닭갈비 메뉴의 점심식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정 기 총 회 이 모 저 모



둘째날 참가자들이 춘천교구 주교좌 죽림동성당 내 성직자모지를 방문하여 기도하고 있다.



회의를 마친 참가자들이 춘천평협이 준비한 아가페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정기총회 개막미사가 한국평협 담당사제인 손희승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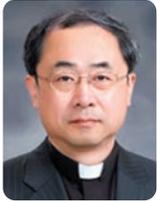
광주평협 서정권 회장이 광주평협 조직 구성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참가자들.

지금HOT & NOW 신앙의 해 특집

신앙에 물주기 | 말씀 편



손희송 베네딕도 신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담당사제)

올해는 교황청이 선포한 '신앙의 해'입니다. 계간 <평신도>에서는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굳건한 믿음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신앙의 해 특집 - 신앙에 물주기' 코너를 마련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례, 기도와 나눔을 통해 성장합니다. 손희송 베네딕도 신부님의 연재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현존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입니다

'신앙의 해 특집 - 신앙에 물주기' 글 실는 순서

- * 봄 — 말씀 편
- * 여름 — 기도 편
- * 가을 — 전례 편
- * 겨울 — 나눔 편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친교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당신과의 친교에 초대하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현장」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

이런 하느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분과의 친교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인간의 말도 나름대로 힘이 있습니다. 그럴진대 전능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이루는 창조의 말씀(시편 33,9 참조)이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능력의 말씀(이사 55,10-11 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신앙의 불꽃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을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신앙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미사 전에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현존을 훨씬 더 잘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오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지닌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식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신앙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루카 8,4-8 참조)가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길에 떨어진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싹도 못 트고 죽어버리고, 바위에 떨어진 씨나 가시덤불 한가운데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다가 죽어버리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백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길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악의 세력의 방해로 받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닥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

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인생 걱정으로 짓눌리고 재물과 쾌락에 마음이 뺏겨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씨 열매를 맺는 사람”(루카 8,15)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이 여럿 소개됩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은 성모 마리아 이십니다.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처녀의 몸으로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런 순종의 응답이 있었기에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열린 자세로 듣고 마음에 간직할 때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발치에 앉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좋은 뭇을 선택하였다.”(루카 10,42)고 칭찬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거듭 새롭게 되기 때문에 미사의 전반부는 성경 말씀을 듣는 ‘말씀 전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 중에 봉독되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한다면 영성체 때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루카복음서가 전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24,13-35)에서 암시됩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스승 예수님이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낙담과 절망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낯선 나그네가 다가와 성경을 뜻풀이해주면서 메시아는 고난을 겪고 나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는 그를 초청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 중에 낯선 나그네가 그들에게 빵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아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뜻풀이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길에서 나그네가 성경을 뜻풀이해준 것은 말씀 전례를, 빵을 떼어 나누어 준 것은 성찬의 전례를 암시합니다. 우리 역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말씀 전례에서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고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 성찬 전례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전례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잘 준비된 사람은 영성체를 통해 주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사 전에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어서 10분 동안 말씀을 읽고 새기는 시간을 갖는다면 미사 중에 봉독되는 성경 말씀이 귀에 더 잘 들어와 우리 마음을 움직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성체를 영하면서 주님의 현존을 훨씬 더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성경을 옆에 두고 자주 읽고, 묵상하며, 필사를 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주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때가 바로 문자로 된 성경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말한 대로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깝게 대하여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져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신앙인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역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얻은 내 나이

김민양 엘리자벳(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사무장)

저는 '지천명'이 코앞인 아들 셋을 둔 중년 '아줌마'입니다. 자동차로 보면 '폐차'는 아니지만, 자주 손을 봐 줘야 하는 '중고차' (?)라고나 할까요? 제가 '중고차'인 줄도 모르고, 아직도 운기가 반들거리는 새 차인 줄 착각 속에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활기는 사라지고 웃음기라고는 없는 '낯선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사진을 찍는 것도 싫고, 누가 내 나이를 물어보면 한참을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만 정확하게 나이를 말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나이를 계산하다가 그런 건 왜 묻나?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식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새치가 늘어가고, 아이들도 다 성장해 별로 손 쓸 일이 없고 보니, 이제야 나이 들과 늙어가는 것을 깨닫고 허탈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다소 생소하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특히나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과 시력에 짜증이 납니다. 처음에는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며 나를 다독였는데, 그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대 때와는 또 다른 '사춘기' 즉, 몸의 '사춘기' 같은 거였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즈음 나이 먹은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지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이 엄마 품에 안겨 포근하게 잠든 아기의 모습이라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늙은 노인의 얼굴이라고 하더군요.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내 내면이 깊어지고 지혜가 하나씩 쌓여가도록 하며 내 생을 가꾸어야겠지요? 젊음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숙하고 고민도 많은 과도기의 혼란을 지나야 하지요. 그 험난한 생의 여정을 지나 완숙을 위해 달려가는 내가 대견스럽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다독입니다.

젊은이들과 내기하듯 젊음을 지키려는 자만을 버립니다. 이번 사순기간에 그런 마음을 버리려 기도합니다. 하느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느님이 사랑하는 나를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없애려 합니다.

이젠 성숙한 아름다움을 채우기 위해, 나의 새로운 전성기인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내 나이를 사랑하고 나의 눈가의 주름을 사랑하며 새로운 부활을 꿈꾸렵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몸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 돌아가심을 기억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도 저를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김정은 크리스티나(프리랜서 편집자)



새봄이다. 긴 겨울 추위와 긴 겨울방학을 보낸 아이들에게서 해방되어,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는 이 봄, 나는 참 행복하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는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아 기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나는 나이 마흔이 되도록 늘 불행했고 슬펐으며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내가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깨닫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다.

결혼하고 내 수족처럼 움직일 것 같았지만 결국 남의 편인 남편과 살면서, 또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내 뜻대로 되려니 했던 아이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는 좌절하고 분노했으며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은 황폐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험악하게 변한 낯선 내 얼굴을 발견하고는 섬뜩한 전율감과 함께 내가 이런 얼굴로 나와 가족을 괴롭혔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문득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난생 처음으로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점차 내가 세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났고 내 삶에도 빛이 스며들었다.

무신론자로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던 나는, 내 아

신부님께 “하느님을 한 마디로 정의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잠시 주저함도 없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대답하셨다.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신부님께 예비자교리에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 내 영혼을 울린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들었다.

이에게만은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주고 싶어서 부모가 신자가 아님에도 유아세례를 받게 했다. 그런데 아이가 4학년이 되자 첫영성체를 하고 싶다며 엄마가 성당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권했다. 싫다고 했더니 자기는 “3학년 때 첫영성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예수님 몸을 먹고 싶다.”고 애원했다. 예비자교리 신청 마지막 날, 주보를 보고 본당 보좌신부님께 전화를 했다.

사정을 설명하고 제가 성당에 나갈 수 있게 나를 설득해 달라고 청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신부님께 “하느님을 한 마디로 정의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잠시 주저함도 없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대답하셨다.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신부님께 예비자교리에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 내 영혼을 울린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들었다. 흔하디흔한 그 말이 왜 그때까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까?

성모승천축일에 세례를 받고 나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성당을 찾아가 예수님께 하소연했다. 맘에 안 드는 남편, 아이들, 직장 동료들의 만행(?)을 예수님께 이르기도 하고 때론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던 화(禍)와 분노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봄꽃이 피어나듯 하느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어느

순간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랑을 하느님은 내게 소낙비처럼 퍼붓고 계신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나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듯 그 사랑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례를 받은 지 10년, 나는 이제 부활과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임을 믿는다.

몇 년 전, 신학교의 그리스도론 시간에 “순간순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란 신부님의 말씀에 “맞아 바로 그거야.”하고 수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서 부활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다. 지금 여기서 나날의 죄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구원이 아닐까? 내가 늘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해도 내가 살아갈 날들이 언제나 꽃피는 봄날만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걸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내게 주어지는 고통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게다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도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그보다 더 큰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겠는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세례와 부활

손세공 엘디(마리아사업회 회원)



열아홉 살 청춘시절, 난데없이 찾아온 의문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에 빠지면 혼자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날도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아파서 우연히 앉은 곳이 명동성당이었습니다. 성당 안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고 있었고, 몇 자리 앞에 한 여자가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했던 마음은 발길을 본당 사무실로 향하게 했고, 그 길로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이유를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라고 적었고, 교리공부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3년이 지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본당 안에서 온갖 감투를 다 쓰고 다녔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즈음 저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하느님이 계시까?’ 라는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의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하느님이 진짜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다. 당신은 하느님을 만났느냐?”고 말해 버렸습니다. 순간 화기애애하던 모임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

해졌습니다.

모임을 주관하던 분이 온화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하느님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요!”라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바로 그 사랑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세요. 분명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실 겁니다.” ‘그럼 그렇지, 매일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들만 하지.’ 라고 생각하며 별 감흥 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데 욕실 바닥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가득해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살림하는 여자가 뭐하는 거야 청소를 하지 않아 물이 안 내려가잖아!”라고 소리치면, 저녁 준비하던 아내는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욕실로 들어와서 머리카락을 집어 들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내 손으로 배수구의 머리카락들을 집어 들어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콧메이고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벌거벗은 채 저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더 많이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고, 서서히 조금씩 예수님의 삶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집 배수구의 머리카락 처리는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대현 요나(한국일보 논설위원, 한국일보 교우회장)



‘당신께서는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제 열이 아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요나서’에서).

이름이란 참 묘하다. ‘그렇게 되리라’는 운명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이란 소원 같기도 하다. 나는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다. 왜 이 이름을 스스로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그렇게 되기를’보다는 ‘그렇게 되리라.’는 예감 때문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동안 암 투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최근에 다시 일어선 나의 대부(代父) 소설가 최인호 선생님은 자신의 이름 ‘베드로’를 물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요나’로 불리고 싶었다. 대부의 소설 ‘별들의 고향’의 주인공 경아의 ‘요나 콤플렉스’를 떠올려서도, 또 어머니 뱃속의 평화로움이 그리워서도 아니었다. 투덜이 요나와 너무나 닮은 ‘운명’ 때문일 것이다.

나는 주님을 알려고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내(마카엘라)와 성당에서 결혼하는 날, 신부님과 나중에 꼭 세례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의 삶에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자신했다. 주일이면 아내가 성당 가고, 그냥 가서 함께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하는 것이 싫어 도망쳤다. 언젠가는 후회할 줄 모르고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 도망치는 투덜

이. 요나란 이름은 이미 그때 정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모양이다. 그때를 미리 알고 있는 분은 주님이란 것을 깨달았다. 2005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누군가에게, 특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아는가. 그 억울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은 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절대고독을.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상실의 시대’에 쓴 서문처럼 가치관이 뒤집히고 또 뒤집혔고, 진짜와 가짜가 똑같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고, 깨끗함이 더러움이 되고 더러움이 깨끗함이 되는 시대였다. 저녁에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침에 몰래 다가와 등에 칼을 꽂는 시대였다. 아우성도 쳐보고, 몸부림도 쳐보았지만 그놈의 분노와 고통과 억울함은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다. 답답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나의 말을 온전히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오직 주님밖에는.

문정동 성당 대성전 전면 벽에는 커다란 성배가 그려져 있다. 처음 그곳을 찾은 날, 나는 그것을 빈 쓰레기통으로 보았다. 나의 분노와 고통과 미움을 모두 그 안에 버리리라 다짐했다. 돌아서면 또 찾아오는 그것들을 성당을 찾은 날이면 그곳에 버리고 또 버렸다.

주님은 이제야 내가 당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는 그곳을 비워 두었고, 나는 그곳에 나를 비우려 성당에 가고 또 갔다. 물고기 속에 갇힌 요나는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왔다. 결혼 때 신부님이 아니라, 주님 당신과 한 약속을 믿으며 주님은 말없이 빈잔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다. 무려 17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곁으로 돌아온 요나에게 주님은 분에 넘치는 심부름을 시켰다. 성당의 20년 역사를 정리하라고 했다. 싫어서 도망쳤다. 자신의 재능을 주님의 역사에 쓰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글쓰기의 업(業)을 가진 자의 또 다른 글쓰기. 생각만해도 끔찍했다.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교우들 힘으로 20년을 정리하자고 말은 꺼내놓고, 누구도 엄두를 못내 시간만 갔다. 그 답답한 시간들을 참지 못해, 그 잘난 '신문기자'란 직업을 가진 죄로 "말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곧바로 후회했다, 수천 번이나.

귀찮고 막막했다. 아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사업을 귀하지 않다(귀찮다)니."하고 겁을 줘도 소용이 없었다. 2년 가까이 주말, 휴일, 심지어 휴가까지 쏟아 부어도 '역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신앙심은 너무나 얇았고, 자료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으며, 주위의 도움보다는 간섭이 많았다. 봉사의 열기와 글쓰기를 경험하기 위해 그나마 처음 의욕을 보였던 몇몇 젊은이들이 여름 한철 혁혁대다 떠나고, 옆에서 기획을 돕던 교우가 불의의 병으로 손을 놓자 어두운 터널 속에 멈춰선 것처럼 캄캄했다. "그래, 이젠 나의 일이 아니야."라고 부정하고 또 부정했다. 그러나 주님의 세상 아래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요나처럼 다시 투덜댔다.

자료를 정리하고,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인터뷰

를 하고, 교우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소중한 기억의 편린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하루에 열두 번 도망칠 기회만을 찾았다. 아무리 혼자 발버둥치고, 쓰고 또 써도 어둠의 터널 끝은 보이지 않았다. 대성전에 걸린 커다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노려보며 투덜댔다. "때려치우게 만들든지, 아니면 좀 도와주시든지."라고.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느 날 축복과도 같이 한 교우가 찾아왔고, 그의 뛰어난 편집 능력으로 20년사는 한결음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득했던 터널의 끝이 보였고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주님은 또 그렇게 언젠가는 요나가 '20년사'를 움켜진 채 자신에게로 걸어오리란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문정동 성당20년사'를 쓰면서 굳어버린 기억과 자료, 그것들을 어설피게 정리한 글로는 역사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각자의 가슴과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수녀님은 지하철에서 만난 지체장애 청년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았고, 어느 신부님은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봉성체를 주던 뇌성마비 청년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성당을 주검이 되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은 날을 회고하면 눈물을 흘렸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역사이고, 성전의 역사임을 주님의 심부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었으랴.

'20년사' 쓰기는 햇병아리 신자에게 더 없는 축복이었고, 17년을 기다리며 준비한 주님의 더 없는 사랑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나는 그 4년 전의 사랑의 축복을 잊어가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칠 곳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리도 뛰어보고 저리도 뛰어본다.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는 요나가 열이 아득해져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다. 그때가 언제이고, 또 어디일지는, 말없이 기다리시는 주님만 아실 것이다.



생명의 씨앗으로서 죽는것

진영진 안젤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명윤리학 박사과정)

2007년, 마흔 살을 넘기고도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불혹(不惑)’은 고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미사 참례를 하던 중 주보 간지를 통해 가톨릭대학교에서 생명대학원을 개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명윤리학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음에도 나는 막연하게나마 인문, 사회, 철학, 과학, 종교 등 전반적인 시각에서 인간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또 그즈음 갖고 있던 나의 의문과 고민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진학을 결심했다.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도 내 고민은 계속되었지만, 삶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들을 알게 되었고, 적어도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여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특히 관련 일을 해온 나는 특허제도가 해당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한 제도라는 데 전혀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특허제도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짐으로써 농부들로 하여금 매년 종자를 살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터미네이터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

원을 하고 있었다. 또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미명 아래 인간 배아를 파괴하여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얻어진 기술이 특허 출원되고 있었다.

씨앗으로부터 더 이상 생명의 순환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도 되는 것인가? 인간 배아의 파괴는 곧 인간 생명의 파괴가 아닌가? 인간이, 생명이 무엇인가? 과학의 발전, 제도의 변화, 문화의 생성과 소멸 등에 따라 무엇이든 적절하게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에 대한 정의마저도 바꾸어 가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볼 생각으로 2013년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이 말씀에서 죽으면 ‘이라는 말을 지금 나는 이렇게 풀고 싶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면 내가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반(反)생명적인 현상들을 거부하고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혹은 지켜야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겪을 희생과 인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씨앗으로서 죽는 것’ 이 아닐까?

태아도 생명이다 - 낙태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안나 안나(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대변인)

흔히 목숨만큼 소중한 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 정말 그런가요?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낙태율과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로 아이들이 걸음마도 떼기 전부터 온갖 사교육을 경쟁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선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 반성해 봅시다.

지난해 수능을 마친 여학생이 산부인과에서 임신 23주에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태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자궁 천공, 장 파열 등 장기 손상, 패혈증, 골반염 등 심각한 낙태 후유증을 겪는 여성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학생도 가족도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신 23주면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이 낙태반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미국 성직자협회와 낙태 반대모임 회원들이 워싱턴 미 대법원 앞에서 손잡고 낙태 반대 기도를 하고 있다.

살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소중한 두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현실은 낙태하기가 가장 쉬운 나라에 속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인 진오비가 2009년부터 낙태 근절 운동을 펼치면서 낙태를 하는 병원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현재도 돈만 있으면 별 어려움 없이 당일 낙태가 가능합니다. 낙태가 합법이지만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하지 않아 낙태하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미국과는 대조적입니다.

진오비 활동 이후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낙태를 하고 있지 않고, 대형 산부인과도 거의 낙태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에는 '미혼여성 임신' '처녀 임신' '임신 수술'의 비밀 보장을 약속하며 낙태 환자를 유인하는 산부인과 광고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고, 이를 외면하는 사법당국은 사실상 낙태를 해주는 산부인과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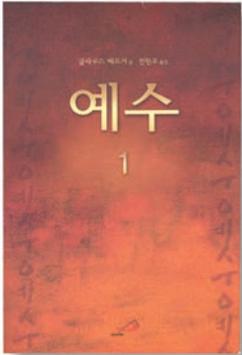
그러나 이렇게 '낙태 전문'을 표방하며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을해도 10% 정도에서 자궁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며, 그중 2%는 사망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안전한 낙태'란 없다는 것을 수년간 낙태수술을 했던 산부인과 의사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낙태 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정서적 후유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낙태한 거

의 모든 여성이 겪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과정, 낙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압박은 '아기를 지운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낙태라는 상처까지 얻어져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아픔이 됩니다.

여성들이 낙태라는 위험한 뒀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여성을 위하는 사회입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우리 사회가 초보적 찬반 논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낙태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과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 한마음으로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일단 출생한 경우라면 미혼모의 아이든, 장애가 있든, 어려운 환경이든, 죽이는 것이 엄연한 살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직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한 환경에 따라 차별하고 낙태를 당연시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저급한 짓대입니다.

경제적 판단이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나라에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낙태 없는 대한민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각성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임신한 모든 여성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어머니로서 존중 받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바오로출판사
클라우스 베르거 지음
전현호 옮김
155×225 592쪽 값 30,000원

지금 우리는 '신앙의 해'를 지내고 있다. 교회가 신앙의 해를 선포한 이유는 세상에 구원의 빛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인 예수! 오늘날만큼 그분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고 싶었을 때가 있었던가.

때마침 성바오로출판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대작을 내놨다. 성경주석학 대가인 클라우스 베르거의 최신작 '예수'를 번역해 출간한 것이다. 1940년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베르거는 학자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지만 결국 가정을 이루었고 하이델베르크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서 학자로서 전 생애를 보냈다. 은퇴 직전 자신은 한 번도 가톨릭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선언하여 가톨릭 신자들에게 은근한 기쁨과 힘을 주었던 그는 성경에 관한 자신의 평생 작업을 이 책에 온전히 쏟아냈다. 그는 학술적 지식을 뛰어넘어 폭넓은 식견으로 예수의 정체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학설과 견해로 왜곡된 예수의 인물상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깊이 묵상하도록 이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보자.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삶과 죽음만큼이나 큰 차이는 하느님 자신이 지닌 동경과 사랑에 의해서만 지속적으로 극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이러한 말을 해야 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두려움도 지니지 마라!" 하느님의 면전에서서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들려온 말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모든 초대를 한 마디로 응축한 말, 그 모든 초대를 뛰어넘는 말이었다. "나는 너를 나의 아들로 사랑한다!" 하느님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를 선택하여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 의미는 이와 같다.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 사시고자 하고 그 안에 실제로 현존하신다. 사람들이 그분을 알 아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제자들은 예수와 지내면서 "어디에서도 하느님을 이렇게 가까이 체험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예수와 같은 존재는 하느님이어야 한다. 그렇게도 매혹적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무릎을 꿇게 한다. 그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실현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여기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말은 하느님이 생각이라거나 경건한 원의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더 높은 것'에 대해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매혹적인 현존이라는 뜻이다.

옮긴이 전현호 실베스텔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일독을 권한다. "베르거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굳이 예수님과 교회를 반드시 옹호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태에 있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그가 펼쳐놓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객관성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예수! 그 이름은 이제 다시,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매순간 불러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수!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세상을 아우르는 바로 그 이름이다.

많은 사람이 삶에 지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한다. 힐링이 필요한 시대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책 두 권이 결합상품으로 출간되어 눈길을 끈다. 마음 치유 전문가 하레스쿠 마사히데 신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시집 '괜찮아'와 산문집 '나를 살리는 말'을 가톨릭출판사가 펴냈다.

일본에서 가톨릭은 전체 인구 중 신자가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인 종교다. 하지만 하레스쿠 신부는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 타종교 신자, 무신론자들 사이에도 '카리스마 신부'로 불리며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자의 강론이나 강의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어 공감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야기가 듣는 이의 마음에 스며들면서, "다시 해봐야겠어!" "이것으로 충분해."를 되뇌며 위로와 치유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사막처럼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에 한 줄기 시원한 소낙비와 같은 이 두 책은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특히 가톨릭 사제가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색채가 짙지 않아 비신자들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괜찮아'는 세상사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노래들을 모은 시집이다. 본문을 살짝 엿보자.

병에 걸리면 자꾸자꾸 울어.

아파서 잠들 수 없다고 울고

(중략)

다시없는 기회를 얻은 거야.

시련이 모두를 묶어 주는 기회를 말아야.

병에 걸리면 안심하고 기도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중략)

병에 걸리면 다시없는 기회를 얻은 거야.

병에 걸린 때가 바로 은혜의 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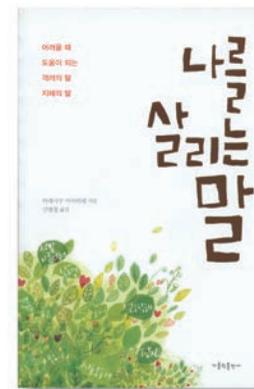
이런 식이다. 지금은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시간들이 사실은 더 큰 은총을 위한 인내의 시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다. 책은 눈앞에 닥친 고난에 갇혀 앞이 캄캄하다고 울부짖는 이들에게 다른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고통의 시간을 살아내도록 부드럽게 말을 건넨다.

'나를 살리는 말'에서 하레스쿠 신부는 '안녕' '다녀오세요' '미안해' '괜찮아' 등 우리가 평소 쓰는 말에 담긴 힐링의 요소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아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할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믿음을 구할 때 정작 필요한 건 거창하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마침내 이 책을 덮을 쯤이면 "아이쿠! 하레스쿠 신부님 덕분에 살았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김선동 루카 편집위원



가톨릭출판사
하레스쿠 마사히데 지음
신병철 옮김
127×188 140쪽 값 8,000원



가톨릭출판사
하레스쿠 마사히데 지음
신병철 옮김
127×188 320쪽 값 10,000원

문화CULTURE 권용준 교수의 성화이야기

카라바조의 '성 마태오의 소명'

(The Vocation of Saint Matthew)



1599~1600, 캔버스에 유화, 322×340cm,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의 콘타렐리 소성당, 로마

서구 바로크 미술의 탄생을 알린 이탈리아의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는 예술적으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폭행과 결투, 살인과 도피, 투옥 등 그늘진 삶을 살다간 ‘저주받은 화가’다. 이 불운한 광기의 천재가 죽음의 기로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린 그림 중 하나가 <성 마태오의 소명>이다.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폭력배인 세금징수원을 직업으로 삼는 마태오를 부르시며 “나를 따라라.” 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구레나룻 수염에 날선 콧날과 강인한 턱을 가진 건장한 청년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동반하시고 마태오를 지목하고 계신다.

그림 속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면, 가장 왼쪽에는 예수의 부르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두어들인 동전을 세는 데 여념이 없으며 이 소란을 틈타 동전을 뒤로 빼돌리는 녀석이 있다. 그 옆의 안경 쓴 노인 은 동전 세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 이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어 예수의 부르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등을 보인 녀석은 부르심에 응대하지만, 손은 칼에 가 있다. 그 맞은편 녀석 역시 응대의 제스처를 보이지만, 예수님보다는 그 뒤의 사람에게 몸이 더욱 기울어져 있다. 이들은 세속의 욕망이나 권력을 중시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베레모의 사내가 있다. 마치 “저 말입니까? 저를 부르시나이까?”라고 대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손가락 위치로 보아 누가 정확하게 마태오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카라바조는 그리스도의 손가락 위치를 세 번 바꾸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카라바조가 이전에 그린

마태오의 모습과 비교하면 맨 왼쪽의 인물과 안경 쓴 사내를 마태오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당에 있던 조각가 코바르트의 ‘성 마태오와 천사’라는 작품의 이미지는 베레모의 사내를 닮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카라바조의 생각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마태오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니었을까? 매일 간곡하게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보다는 세속의 욕망에 도취되고 권력에 아부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마태오가 아닌가?

물론 다르게는 많은 죄를 짓고 세상을 떠돌며 극심한 피로와 고독,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던 화가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흔쾌히 불러주시길 바라는 내면의 나약한 인간적 심리가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한 무리의 사내들 가운데 나는 누구일까를 되돌아보게 한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막은 모리배일까? 아니면 세속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내면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틈도 없는 이기적 존재일까? 혹은 세상일에만 치중하여 말씀을 도외시하는 모습일까?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 나를 이토록 간절하게 부르고 계심을 알고, 귀와 마음을 그분께 여는 참된 신앙의 의미를 새기게 하는 그림이다. 그 마음은 닫힌 창문에 새겨진 십자가로 통하며, 십자가를 물들인 빛과 생명의 길이다. 그럼에도 부르시며 지목하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힘이 빠져 축 처져 있음에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가?

고려사이버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기도로 걷는길(1) - 서소문 순교성지

털끝만한 것도 모두 하느님의 힘입니다



류정호 데레로사(가톨릭생명연구소 연구위원 · 작가)

물길과 꽃길을 따르던 여행기 한 권을 낸 후, 혹한을 빌미삼아 따끈한 아랫목에서 빈둥거린 지난 겨울이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평신도가 만드는 계간지 ‘평신도’에 성지 순례기를 쓸 수 있겠는지를 물었다. 기다렸던 양 “오래전부터 성지를 찾아다니며 참배하고, 순례기를 써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말았다.

덤석 쓰겠다고는 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에 넘어지는 내가, 온 몸을 바쳐 신앙을 증거했던 순교자들을 어떻게 그려내다는 말인가. 금세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올해는 교황청이 선포한 ‘신앙의 해’이고,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어, 이것은 어쩌면 하느님이 내게 주시는 임무이자 선물이라고 믿으며 용기를 냈다.

쌀쌀한 바람 중에 봄기운이 만져지는 3월 초, 첫 순례지를 어디로 정할까 고민하던 나는, 전 세계에

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인과 하느님의 종이 탄생한 서소문성지를 둘러보기로 했다.

서울역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10여 분 걸으면 가파르게 에워싼 빌딩 숲을 따라 서소문로가 있다. 조선시대에 이 길은 일반인의 통행로이면서, 시신을 성 밖으로 옮기는 통로 구실을 했던 길이다. 새남터와 더불어 서소문은 죄인들을 공식적으로 처형하는 장소였다. 서소문에서 처형된 시신들은 주로 서소문 밖 네거리에 버려졌다.

서소문 순교성지. 한국 최대 순교자 탄생지이자 가장 많은 순교자가 스러져간 곳이니 한눈에 성지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소문 순교성지는 아현고가도로와 경인선 철도, 고층빌딩 사이에 가려져 잃어버린 성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근린공원 안, 벚나무 곁에 서 있는 ‘서소문 밖 순교성지’라는 표지석의 설명이 없었다면 자칫 성지에 서서 성지가 어디냐고 헤매다 돌



아설 뻘했다.

서소문 순교성지터는 현재 해당 구청이 그 터에 근린공원을 조성했다. 운동기구 몇 개가 설치된 공원 한편에 세 개의 돌기둥이 우뚝 선 제대가 있다. 제대 아래쪽으로 보이는 빗들을 찬찬히 읽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가 서소문 밖 순교성지로구나 생각할 정도였다.

최대 순교지라고 해서 규모가 최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로 한국 최대 순교자 탄생지가 이렇게 홀대를 받을까 하는 생각에 쓸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무겁고 죄스런 마음으로 현양탑에 다가갔다.

‘복되어라,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현양탑에는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두 개의 돌기둥과 함께 하늘을 우러르고 있

다. 십자가에 매달린 순교자의 처연한 모습과 온갖 고문과 박해 속에 스러져가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엮은 부조에서 살아있었다.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 44위, 1839년 기해박해 41위, 1866년 병인박해 13위 순교자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불렀다.

“성 김업이 막달레나, 성 김아기 아가다, 성 이소사 아가다, 성 박아기 안나, 성 이광현 아우구스티노, 성 한아기 바르바라, 성 박희순 루치아, 성 권득인 베드로, 성 남명혁 다미아노, 성 김노사 로사, 성 김성임 마르타, 성 이매임 데레사, 성 이영희 막달레나, 성 김장금 안나, 성 김누시아 루치아, 성 원귀임 마리아, 성 이광렬 요한, 성 권희 바르바라, 성 김호주 아녜스, 성 이정희 바르바라, 성 박후재 요한, 성 박큰아기 마리아, 성 이연희 마리아, 성 정하상 바오로, 성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 김제

문화CULTURE 기도로 걷는길(1)



준 이냐시오, 성 남이관 세바스티아노, 성 조신철 가롤로, 성 김유리대 올리에타, 성 허계임 막달레나, 성 전경협 아가다, 성 현경련 베네딕타, 성 고순이 바르바라, 성 이영덕 막달레나, 성 최창흡 베드로, 성 김효임 골룸바, 성 박봉손 막달레나, 성 홍금주 페르페투아, 성 정정혜 엘리사벳, 성 조증이 바르바라, 성 한영이 막달레나, 성 남중삼 요한, 성 전장운 요한, 성 최형 베드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을 증거함으로써 망나니의 칼날에 스러져간 성인들 한 분 한 분의 이름 앞에 내 신앙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두운 토굴에 모여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신앙은 불타올랐고, 오로지 한 길, 순일한 믿음으로 간 분들이지 않던가. 온갖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온몸을 불살랐던 순교자들은, 쉽고 편한 길만 찾아드는 나를 따끔하게 질책하는 듯했다.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온 230년 전, 척박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초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

는데 털끝만한 것도 모두가 하느님의 힘이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며 사랑받아야 한다.’는 천주교 교리는 천지개벽 같은 희망이었을 것이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을 읊조린 기도에도 삶의 기대를 가졌던 선조들일 터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현양탑 뒷면의 복음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철마가 철커덩 철커덩 굉음을 내는 서소문 순교성지를 나왔다.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신앙을 증거하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준 이곳이 하루빨리 멀리서도 옷깃이 여며지는 곳, 신앙이 자라고 영성이 깊어지는 성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 바람을 아는지, 그 시각 서소문 순교성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약현성당의 종탑에서 삼종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퍼져 흘렀다.

교황이 된 양치기 출신 수학자

실베스텔 Ⅱ세(제르베르 드 오리야크)

명백훈 프란치스코(수학자)



“올바른 사람은 신념으로 산다. 그러나 과학과 신념을 결합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실베스텔 Ⅱ세)

장엄한 겨울이 가고 은근한 온기가 천천히 차오르더니, 어느덧 노란 민들레와 눈부신 분홍의 키작은 꽃 잔디들이 향기롭고 드문 초목들과 함께 실개천 옆의 푸르른 비탈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솜씨가 좋은 정원사가 꽃들과 향기로운 초목의 씨를 듬뿍 뿌린 것처럼, 따뜻한 햇볕을 받은 라일락과 자목련과 연산홍의 고귀한 자태와 향기가 철쭉과 산자고와 제비꽃 등의 은근하고 감미로운 향기들과 더할 수 없이 기묘하게 혼합하여 가장 좋은 향기들을 사방으로 뿌립니다. 향기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사월은 참으로 창조주의 유쾌

한 시(詩)요, 사랑의 연가입니다. 이 봄이 봄답게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색과 향기와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되신 봄날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사랑과 순명과 조화의 미덕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봄이 왔지만 이 시대는 여전히 매서운 추위의 한겨울처럼 날이 늘어나는 반목과 증오와 불신과 경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직자 감소 문제가 있으며, 가톨릭 신자 감소와 서구 문화와 그리스도교 가치의 충돌, 또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그리스도교권 지역에서의 대화와 증거를 통한 선교,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관계 개선 문제도 새 교황님의 과제로 꼽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생명공학과 의학 발전에 수반된 윤리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 등도 새 교황님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고 무거운 짐이 교황님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 고통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날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시련은 우리의 옷을 벗기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다시 입히기 때문입니다.

약 1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4세기부터 시작된 바바리안의 침략과 더불어 9세기와 10세기는 더욱 파괴적인

문화 CULTURE 가톨릭 특강



바이킹족, 마자르족, 이슬람의 침략으로 교회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습니다. 100개 수도원이 있으면 그중 99개 수도원들이 불탔고 수사들은 죽거나 쫓겨났다고 합니다. 재건 초기에 가장 밝은 빛을 낸 이가 바로 천년을 바라보는 999년에 즉위하신 교황 실베스텔 2세(라틴어:Silvester PP. II)로서 제 139대 로마 교황(재위:999년 4월 2일~1003년 5월 12일)이며, 세속명은 제르베르 드 오리야크(프랑스어 Gerbert d'Aurillac)인 최초의 프랑스 출신 교황입니다. 그는 1000년 폴란드에 첫 번째 대주교좌를 신설하게 하고, 헝가리 왕국의 왕 이슈트반 1세를 지원하여 대주교좌와 새로운 주교좌를 신설하였으며, 그리스도교를 노르웨이의 공식 종교로 삼은 노르웨이의 왕 올라프 1세에게 룬 문자 대신에 라틴어를 사용하게 하여 로마 가톨릭을 발전시키게 하였습니다. 키예프의 대공(大公)이자 훗날 러시아 최초의 그리스도교인 군주 블라디미르 1세와 관계를 맺고 달마티아의 종교적 기초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교황직과 결부시켜 세속권에 면제되는 정책을 지속시켰으며, 수도자들이 수도원장을 자유로이 선출하게 하고, 성직매매와 족벌주의를 금하고, 성직자들에게 독신을 지키게 합니다. 그는 학문의 이론과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천문, 지도, 오르간, 수사학 궤도 등을 만들게 하고, 프랑스에 최초의 학교를 창설하여 유럽에서 수학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며, 수판, 지구의, 천구의, 시계를 만들었다고 전해 집니다. 그의 정치학, 주교의 행정, 필사본, 수학,

과학 등에 관한 서신과 기록은 그 시대와 교황 개인의 특징과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원반 이론》, 《기하학에 대하여》, 《이성적인 것과 이성의 사용에 대하여》 등이 있으며, 특이하게도 수학자 출신인 그는 서구에 ‘인도-아라비아숫자’를 도입한 주인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서구에 수학의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은 그가 숫자의 존재도, 이것이 가져왔을 숫자의 세계, 즉 위치에 따른 인도식 명수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는 것처럼 혁명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보수적인 사회의 완고함과 우둔함, 즉 쉬운 계산법을 통한 셈법의 민주화로 인해 자신들의 특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기득권의 반대에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10세기 말의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는 실베스텔 2세는“신은 이성을 헛되이 쓰라고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 신은 인간에게 신념을 줄 때 큰 재능을 주셨고, 동시에 지식을 주셨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말로 개혁에 대한 아쉬움과 자신의 신념을 표현합니다. 새 교황님께서 실베스텔 2세처럼 과감히 교회를 개혁하시어 새 시대의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새 교황님과 저희를 포함하여 큰 파도 앞에 직면한 이 지상의 교회가 주님의 인자(仁慈) 앞에 별거벗은 채로 있사오니, 주님의 인자(仁慈)로 저희에게 천상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29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는 지난해 12월 27일 명동성당 소성당에서 '제29회 가톨릭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가톨릭대상에서는 '대상' 수상자를 내지 못한 가운데, '사랑부문 특별상'은 집수리 봉사에 앞장서 온 박우훈 님이, 정의평화부문 특별상에는 바른 선거제도의 정착과 공명선거운동에 힘써 온 조주환 님이 받았다. 1982년 한국평협이 제정한 '가톨릭대상'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동선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한다. 사랑, 문화, 정의평화 부문으로 나누어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46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평협은 지난 2월 15~16일 춘천 라테나 리조트에서 각 교구 평협 회장단과 회원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2년 사업보고와 결산,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서울평협)는 1월 26일 가톨릭 회관 강당에서 회원단체장과 서울평협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2년 사업보고와 결산,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회칙 개정을 통해 단체 명칭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변경했다. 회칙 개정은 회원의 구성과 조직개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수정되었으며, 올해 사업계획으로 '회원단체지원사업'과 '시복·시성기도운동', '신앙의 해' 활동 등을 확정했다.



교구장님과 단체 만남의 날

3월 2~3일 1박2일간 수원교구 성 라자로마을 내 아론의 집에서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와 인준단체 임원들의 만남의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교구 사목국 단체사목부와 서울평협이 공동주최하여 40개 인준단체에서 80여 명의 임원과 서울평협 회장단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신앙의 해' 강의와 단체 발표, 그룹별 나눔과 발표 등을 통해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공의회학교 개막

서울평협이 2007년부터 시작한 공의회학교 올해 첫 강의를 3월 4일 시작했다. 150여 명의 수강생이 총 14주간에 걸쳐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을 공부하는 공의회학교는 김성태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14주간 펼쳐진다.

〈서울평협 회원단체 소식〉

제20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시상식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명동대성당에서 제20회 자랑스러운 가톨릭경제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창부 삼다건설(주) 대표이사가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30차 정기총회 및 2013년 신년미사 봉헌

가톨릭경제인회는 1월 11일 오후 4시 가톨릭회관 2층 소강당에서 제30차 정기총회 및 2013년 신년미사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단체 내실화를 통한 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해 한 차례 실시해 호응을 얻었던 '경제 및 신앙 세미나'를 올해는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43차 정기총회 개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대전평협)는 지난해 12월 1일 전의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2년 결산보고와 사업보고, 2013년 예산승인 및 회칙 개정을 하였다. 77개 본당에서 2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단체의 명칭인 '천주교 대전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천주교 대전교구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변경했다. 또 '3년 단임제'인 회장 임기를 '2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의 임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3년 임기를 마친 김흥거 제21대 회장의 뒤를 이어 이명수 씨(탄방동성당)가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명장 수여와 신년하례식

2013년 천주교 대전교구 제22대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상임위원 18명의 임명장 수여식과 신년하례식이 1월 15일 전의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제22대 대전평협 이명수 회장(사진)을 비롯한 17명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담당사제 상견례와 현황보고

대전평협은 1월 28일 신임 담당사제인 김명현 신부와 제22대 상임위원의 상견례를 갖고 업무보고 및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 등 현황 보고회를 가졌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물진두 성역화를 위한 도보순례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교구 레지아, 꼬미시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1월 26일 제물진두 성역화를 위한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해안동 성당까지 약 3km의 도보순례를 실시했다.

조선 말 천주교 박해 시 제물진두에서 순교하신 아홉 분에 대한 묵상과 기도, 한국 가톨릭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던 제물진두의 성역화를 위한 염원을 담아 순례와 미사를 봉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30여 명이, 올 1월 순례에는 34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세계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

세계평화의 날 미사와 신년교례회가 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사제단, 신학생, 수도자, 교구단체장, 평협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는 “2013년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속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38차 정기총회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월 2~3일 정하상바로 영성관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첫 날은 '본당 복음화를 위한 공동체 신심 함양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구별 그룹토의 및 발표와 선교사 목국장 김성남 신부의 '교구장 사목지침 해설', 둘째 날은 손삼석 주



교의 ‘올바른 신앙’ 특강과 교구장 황철수 주교의 파견미사 및 선교시상식이 열렸다. 황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거룩한 삶이란 모든 일에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맡은 직분과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 안에서 거룩한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신도대회 개최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마산평협)는 지난해 11월 18일 성지여고 강당에서 ‘세상 안에서 그분과 함께’를 주제로 평신도대회를 열었다. 교구장 안명옥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과 각 본당 회장단, 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식전행사와 양태현 신부(대산본당 주임)의 ‘웃음치료’ 강의, 2부 대회선언, ‘2012년 책 읽는 그리스도인’ 독후감 시상식, 3부 삼위일체수도회 안찬모 신부의 ‘평신도의 사명’에 관한 말씀과 평신도 선언, 장엄축복이 이어졌다.

마산교구 평협 제43차 정기총회 및 복음화 대상 시상식



마산평협은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13년 평신도 사도직 지침서 발표를 시작으로, 복음화 대상 시상식 및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강영구 신부(교구 총대리)의 ‘평신도 사도직과 신앙의 해’ 특강에 이어 교구장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신앙의 해 제정 배경과 현 세대의 신앙의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때 신앙의 위기는 극복된다.”고 강조하였다. 복음화 대상 시상식에서는 교구복음화율 10% 달성과 주일미사 참여율 30% 달성에 앞장선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마산평협 회원단체 소식〉

전례와 꽃예술 졸업작품 전시회



전례와 꽃예술학교 마산교구 5기 수료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가 지난해 12월 8~9일 이틀간 반송성당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회는 전례꽃꽂이 5기 최고 지도자과정을 수료한 구성자(반송성당), 강영희(팔용동성당), 박희정(가좌동성당), 주영희(장평성당)의 작품과 졸업생들의 찬조작품, 기초과정과 봉사자과정 수료자들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강철현 신부(미카엘, 성소국장)도 함께하며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면서 기쁨을 나눴다.

제27차 창원교정사목후원회 정기총회

창원교정사목후원회는 1월 28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40여 명의 후원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후원회 현황 소개와 활동 및 결산보고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강영구 루치오 신부(교구 총대리)의 인사가 있었으며, 후원회와 수용자들을 위한 미사로 총회를 마쳤다. 이날 회장 선출에서는 허녕 베네딕토 회장(상남동 본당)의 재선이 결정했다.



2013년도 군중후원회 정기총회 개최

마산교구 군중후원회(담당 강형섭 미카엘 신부)는 1월 28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군중교구 사목 목표에 맞춰 군 선교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총회는 마산, 창원, 진주, 거제지구 각 본당 지회장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미사를 시작으로 전년도 결산보고와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임원진은 모두 유임됐다. 강형섭 신부는 “군중후원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이 군 사목의 밑거름이 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 말씀을 맞들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장님과 신년하례식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월 1일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옥현진 총대리주교, 우원주 사목국장 신부,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 및 교구 단위 여러 단체 임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평협(42차) · 여성위원회(9차) 정기총회

광주평협 제42차 정기총회와 여성위원회 제9차 정기총회가 1월 26일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개최됐다. 본당 사목협의회장, 여성부회장, 여성분과장, 교구 단위 단체장 15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본당 사목협의회 위치와 역할'을 주제로 담당사제인 우원주 사목국장 신부의 특강을 듣고 평협과 여성위원회의 201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소식NEWS



‘광주평협’ 제15호 발행

광주평협은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광주평협’ 제15호를 발행했다. 광주대교구의 교구설정 75주년 및 대교구 승격 50주년 기념 행사와 신앙의 해, 가정의 해, 교구장님과 함께 걷는 도보성지순례를 특집으로 엮었다.

또한 지구 평협, 교구 단위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화보로 정리하고, 신자들의 성지순례기, 신앙체험을 엮어 각 본당과 여러 단체, 전국 교구 평협에 배포했다.

〈광주평협 회원단체 소식〉

전국 다락방기도 대피정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자 2012년 전국 다락방기도모임 대피정이 지난해 12월 8일 염주대전·경환성당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끝났다.



제16회 가톨릭사진회 회원전 ‘탄생’

가톨릭사진가회 회원전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 메트로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22명의 작품 105점이 전시됐는데, 교구설정 75주년 및 대교구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사물의 근원인 ‘탄생’을 형상화한 회원들의 개성적인 작품들이 전시됐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김현조 회장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김현조 회장이 성실 납세와 나눔 문화를 실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장학금 후원을 비롯해 사회단체에 정기적인 후원 활동을 펼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됐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전국 교구 회장단 회의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전국교구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담당사제인 이재돈 신부와 조건현 회장을 비롯한 23명이 참석한 교구 회장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재무보고 및 활동보고, 협회지 발간 및 2013년 인천교구 가톨릭의사회 주관의 총회 및 피정(3월 16~17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또 1월 17일 임원 신년모임을 가지고 2013년도 활동을 위한 힘찬 기약을 다짐했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일본 '눈의 성모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한국가톨릭병원협회는 지난해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 위치한 사회의료법인 '눈(雪)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에서 '눈의 성모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성마리아 국제의료센터 축복식'을 보건사목담당 우수일 주교와 함께 거행했다. 또한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신년하례와 임원회의가 지난 1월 23일 오전 11시 군중교구청에서 담당 우수일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마리아사업회

제3차 동양종교들과의 대화학교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9개국의 포콜라레 회원들이 참석하는 '제3차 동양종교들과의 대화학교'가 2월 1~3일 방콕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각 종교의 경전의 발견, 그리고 평화와 조화에 대한 이 경전들의 기여를 주제로 해 열렸다. 종교 간 대화는 거창한 이론에 있다가 보다는 일상생활 중에 타종교 신자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려는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행사였다.





스마트폰의 사목적 활용

본당 사목의 예

김민수 이나시오 신부(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총무, 서울대교구 불광동성당 주임, 언론학 박사)

1. 스마트 시대

스마트 시대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은 모든 사회생활과 삶의 방식을 엄청난데 변화시키는 ‘스마트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혁명의 선두주자는 이동통신을 이끌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그것은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정보 습득, 업무 수행, 사회적 관계 형성, 여가 활동 등을 하는 스마트 라이프 혁명을 주도한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단순한 통화 기능에서 벗어나 쇼핑, 오락 등 일상생활의 공간이 되었고 사회 구성원을 연결해주는 소셜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운영 체제와 인터넷 검색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무선인터넷을 통해 직접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2012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무실, 집,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언제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TV를 보며, 지인들과 채팅을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에게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한다.

스마트 시대는 종교 영역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순히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거나 이메일이나 쪽지, 메신저 활용하는 기존 디지털 활동을 넘어서서 스마트폰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중과 소통, 선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불교와 개신교의 적극적인 스마트폰 활용에 발맞추어 교구 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굿뉴스(www.catholic.or.kr)에서 매일미사, 성경, 주소록, 성무일도, 성가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여 신자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본당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거나 본당 모바일 웹을 생성하여 본당 공동체와 신자 간, 신자 서로 간에 소통을 활발하게 조성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이 종교의 대사회적 활용에도 기여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는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모금이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멘토 역할을 통해 예기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교회는 미디어에 관한 여러 회칙과 교황 홍보주일 담화문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해왔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매년 홍보주일 담화문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인 스

마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개인과 인류 전체의 선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2011) 특히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복음의 충실한 증인이 되어, 디지털 시장이 제공하는 여러 '목소리'로 자신을 더 많이 표현해 나가고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바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0) 따라서 사제 혹은 교회 전체는 최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사진, 비디오, 애니메이션, 블로그, 웹사이트, 스마트미디어, 소셜 미디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음을 선포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하지만 일상화된 스마트폰이 교회 제도와 체제, 신앙 형성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화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오히려 문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목적 활용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본당은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몇몇 본당을 제외하고 거의 도구적 수준이나 소외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본당 사목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폰의 적극적 활용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본당 공동체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한다.

2. 본당 사목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의 예

1)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웹2.0시대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는 웹1.0시대의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참여에서 벗어나 적극적 참여, 공유, 개방을 특징으로 한다. 본당 웹사이트는 지정된 관리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이용자인 신자들이 클릭하여 소비하는 행태를 지닌다. 물론 신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지만 텍스트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본당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는 지정된 관리자가 있지만 누구나 자신의 정보와 의견을 업로드하여 텍스트뿐



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을 쉽게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카페나 블로그의 내용을 카피하여 퍼올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카페는 이런 장점과 함께 처음 구축하는데 경비가 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를 이용할 수 있어서 본당 인터넷 카페로서 매우 적합하다.

본인은 2008년 역촌동성당에 주임신부로 부임하면서 본당 웹사이트의 필요성을 느끼다가 본당 사목협의회와 논의하여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당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ca-ycd>)는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점차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2012년 6월 현재 1,080명이 되었고, 매일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역촌동성당 카페를 치면 역촌동성당 모바일 카페가 보인다. 물론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없고, 동영상을 볼 때 구동이 늦고 화면 사이즈도 작다는 단점이 있다.

2) 포털사이트 모바일 웹(Mobile web) 활용

모바일 웹은 모바일 해상도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보일 수 있도록 만든 웹이다. 기존 PC 환경

의 웹이 1024또는 1280의 해상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모바일 해상도에서 최적화되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다. 손 안의 작은 PC라 불리는 스마트폰은 PC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폰에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저장 용량이나 메모리에 부담이 없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를 띄우고 모바일 웹으로 들어가면 된다. 예를 들어, 역촌동성당은 인터넷 카페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모바일 앱(Mobile App) 활용

모바일 앱은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든 별도의 프로그램이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제공되는 기본 어플이나 카카오톡, 푸딩, 날씨, 음악 등 대부분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고 있는 본당은 마산교구 양덕성당이다. 양덕성당은 자체 홈페이지에 모바일 앱을 결합해 본래 홈페이지 기능과 모바일 앱을 동시에 구동하고 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 모바일 앱을 추가한 방식은 신자들에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편리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모바일 앱은 아이폰에서 양덕성당을 입력할 때 그에 상응한 아이콘이 생성되지만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앱스토어에서 무료 아이콘으로 다운받으려 해도 아이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인터넷에 양덕성당을 입력하여 양덕성당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양덕성당 모바일 앱이 뜬다. 이 주소를 북마크 하면 다음부터는 이 북마크만 클릭하면 된다.

4) 웹앱 활용

웹앱은 웹과 애플리케이션의 합성어로, PC나 스마트폰 등 단말기 기종에 관계없이 아무 단말기에서나 같은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최근 모바일 웹앱의 개발이 매우 활발하다.

불광동성당은 웹앱을 본당 홈페이지이면서 동시

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곧 구축할 예정이다. 본당 웹앱은 웹사이트 상에서 동영상, 사진, 텍스트를 쉽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회원으로 가입한 신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생성된 불광동성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콘텐츠도 즉시 올릴 수 있다.

본당 웹앱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불광동성당 사목회 소속 '미디어팀'을 구성하였다. 미디어팀은 성전에서 거행되는 전례, 특히 미사 중 사제의 강론을 영상 시스템을 통해 녹화하여 웹앱에 정기적으로 올린다. 또한 본당 행사나 특강도 녹화하여 웹앱에 올린다. 각 단체 활동, 특히 소공동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6개 지역에서 명예기자를 뽑아 교육해 각 지역에 소속된 구역과 반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정보를 취재하여 웹앱에 정기적으로 올린다. 기타 단체, 동호회 활동 역시 동영상과 사진, 텍스트로 올릴 수 있게했다.

본당 웹앱은 온라인 종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웹앱에 올릴 때 누군가 소식을 접한 사람이 기도해줄 수 있다. 온라인 성경 이어쓰기를 할 수 있다. 꼭 집에서만 쓸 필요는 없다. 어디에 있든 시간이 된다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쓸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때 복음나누기 7단계에서 복음 묵상 시 본당 신부가 미리 녹화한 해설을 영상으로 보고 할 수 있다.

3. 스마트폰의 본당 사목 효과

1) 본당 공동체와 신자 간 소통이 더욱 긴밀해진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 외적으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이러한 용이한 접근성은 본당 공동체와 신자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여 본당 공동체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쉽게 개진할 수 있다.

2) 신자 서로 간 소통이 더욱 긴밀해진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익명의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반면에 본당 스마트폰은 등록된 회원 신자 서로 간 모든 정보나 의견을 나누고 교환할 수 있다. 본당 웹앱은 신자 간 다양한 소통으로 친교와 일치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다.

3) 교육의 장이 된다.

본당 웹앱은 매주일 미사 강론, 사순특강, 대림특강, 각종 강연 등이 녹화된 영상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신앙생활을 배우고 성숙시키는 기회가 된다.

4) 교회 활동을 촉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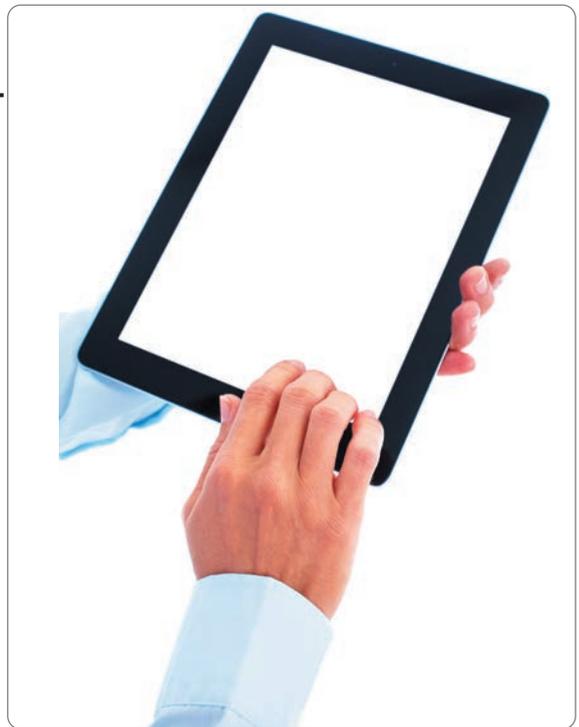
본당 사목협의회, 소공동체, 단체, 동교회 등 여러 가지 본당 활동과 모임이 본당 웹앱을 활용하여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5) 쉬는 교우, 비신자가 본당에 쉽게 접한다.

오랫동안 쉬는 교우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본당에 쉽게 접근하여 정보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는 비신자들에게 성당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나오면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사명을 지닌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아직 젊은 층이 대다수 이용자이지만 점점 스마트폰의 사용 인구는 넓어져갈 것이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사목적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최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웹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웹앱은 스마트폰, 태블릿PC, 그리고 스마트TV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본당 웹앱이 구축이 된다면 어떤 스마트 기기에서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복음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고 (Evangelii Nuntiandi)>(1975)에서는 “교회가 나날이 더 완전해지는 인간 기술이 만들어낸 힘 있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45항)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하느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매스 미디어가 가끔 교회와 세상 간의 유일한 지름길일진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талан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셈”(사목훈령 「일치와 발전 (Communio et Progressio)」 1971, 123항)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최근 교회 안에서 새복음화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새로운 복음화가 효과적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영향이 아주 큰 우리 시대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아메리카 교회」, 72항). 이 문헌에 따르면, 새복음화가 이 시대에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문화, 즉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의 복음화가 실천되어야 한다.

소식NEW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IHS’ ‘IHC’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어서 예들려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인들은 교회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어렵지 않게 불렀습니다. 나아가 이 이름을 표기하는 철자들을 조합한 모노그램을 만들어서 교회 미술이나 전례용품 등에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노그램 중에 IC XC와 IHC XPC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어로는 *ΙΗΣΟΥΣ ΧΡΙΣΤΟΣ*라고 표기합니다 (Σ는 꺾인 부분을 펴서 C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들의 앞 철자와 끝 철자를 조합하면 IC XC가 되고, 앞의 두 철자와 끝 철자를 조합하면 IHC XPC가 됩니다. 이때 더러는 각각의 모노그램 위에 수평으로 줄을 그어 철자를 생략하고 줄였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IC XC와 IHC XPC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편 십자가의 상하 좌우 네 공간에 IC XC

와 승리자를 뜻하는 NIKA를 배치한 모노그램도 있는데, 이것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모노그램들이 중세기에 들어서 그리스어 철자를 로마자로 표시한 IHS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도(1380-1444년)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새롭게 첨가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IHS는 ‘인간의 구원자 예수’ (Jesus Hominum Salvator) 또는 ‘이 표징 안에서’ (In hoc signo),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징 안에서’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성당이나 각종 교회용품이나 전례용품에서 이 모노그램을 발견하면 그 의미를 알기에 좀 더 반갑고 친숙한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석규
가톨릭출판사 문화총서 편집간사, CBCK교육위원회 위원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은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 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해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3년 3월 현재)

소 속	이 름	세례명	이메일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006@hanmail.net
대전평협	이병인	마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부산평협	공복자	유스티나	kongbog@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i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조은정	마리아	chomaria3@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두현자	울리안나	doonim53@hanmail.net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김혜원	울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공·지·사·향

- 2013년 1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의 알림 : 2013년 제1차 상임위원회의가 4월 26일(금)~27일(토) 1박 2일로 마산교구 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됩니다.
- '평신도' 원고모집 :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 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량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발행인 최홍준 파비아노

담당사제 손희송 베네딕토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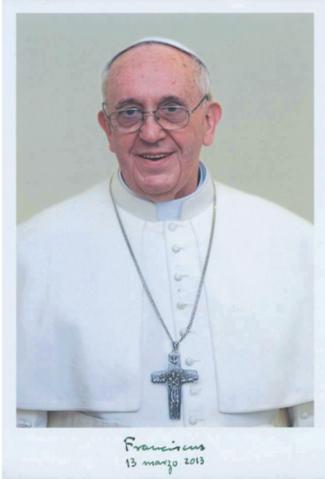
편집위원 김선동 루카, 배봉한 세례자 요한, 이가연 파우스티나, 이귀련 세실리아, 이재철 베네딕토, 이지연 마리아, 이창훈 알폰소 (가나다 순)

편집장 김후남 파비올라

제 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고미자(디자인투데이)

부활을 축하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만세!

miserando atque eligendo
자비로이 부르시니

경제, 정치, 사회생활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간곡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피조물의 보호자, 자연 안에 새겨진 하느님 계획의 보호자, 인간의 보호자와 자연의 보호자가 되도록 합시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호하기,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기,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이는 로마의 주교가 수행하도록 요청 받은 봉사입니다.

2013. 3. 19. 즉위미사 강론 중에서

회장 최홍준 파비아노 외
각 교구 평협, 회원 단체 일동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나라 신비
...땅도 기뻐하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 부활찬송 -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의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